

12월 2주 + 0
11월 3주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10



서울문화재단

Conten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10. vol 56.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시장착공관.
- 문화예술공장 개관 기념 촬영.



14



18



25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 작가, 정승

10월의 문화+서울 | 서울시장작공간 & 2011 서울시장작공간 페스티벌

- 04 예술과 함께 놀자
- 06 시민과 예술가의 행복을 위해
- 08 숫자로 살펴보는 서울시장작공간
- 10 네 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서울시장작공간
- 14 2011 서울시장작공간 페스티벌 맞춤 가이드

사람과 사람

- 18 문화인 뮤지컬 작곡가 장소영
- 26 영 아티스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 32 나의 서울 생활기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
- 36 서울 단상 여행작가 손미나의 어의도에 대한 기억

지금 서울은

- 38 이슈 1 한글이 제일 잘 나가
- 42 이슈 2 퓨전사극과 뮤지컬, 그 묘한 상관관계
- 46 이슈 3 잡지독립만세
- 50 연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④
- 54 이미지 서울 사람의 은유
- 56 이달의 평론 199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의 미학을 고찰하다
〈조용한 행성의 바깥〉전
- 60 리뷰 1 문래예술공장 〈24시간 민화그리기 프로젝트〉
- 62 리뷰 2 영화 〈도가니〉와 소설 〈도가니〉

서울 너머로

- 64 해외 뉴스 '빛'으로 뚫은 예술 속으로,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뉴욕, 파리

문화@서울

- 68 좌충우돌 문화 체험 가든마이프 〈문화숨프로젝트〉 만드는 가드너 북아트 프로그램
- 72 MUST 7 10월의 문화 소식
- 74 문화 캘린더
- 77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9월 25일 등록일 2009년 6월 8일 발행인 인종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주향석 |
세비2(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 디자인 사진 세비2(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욕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이달의 표지 작가

정승

〈Spectacleless Complex〉는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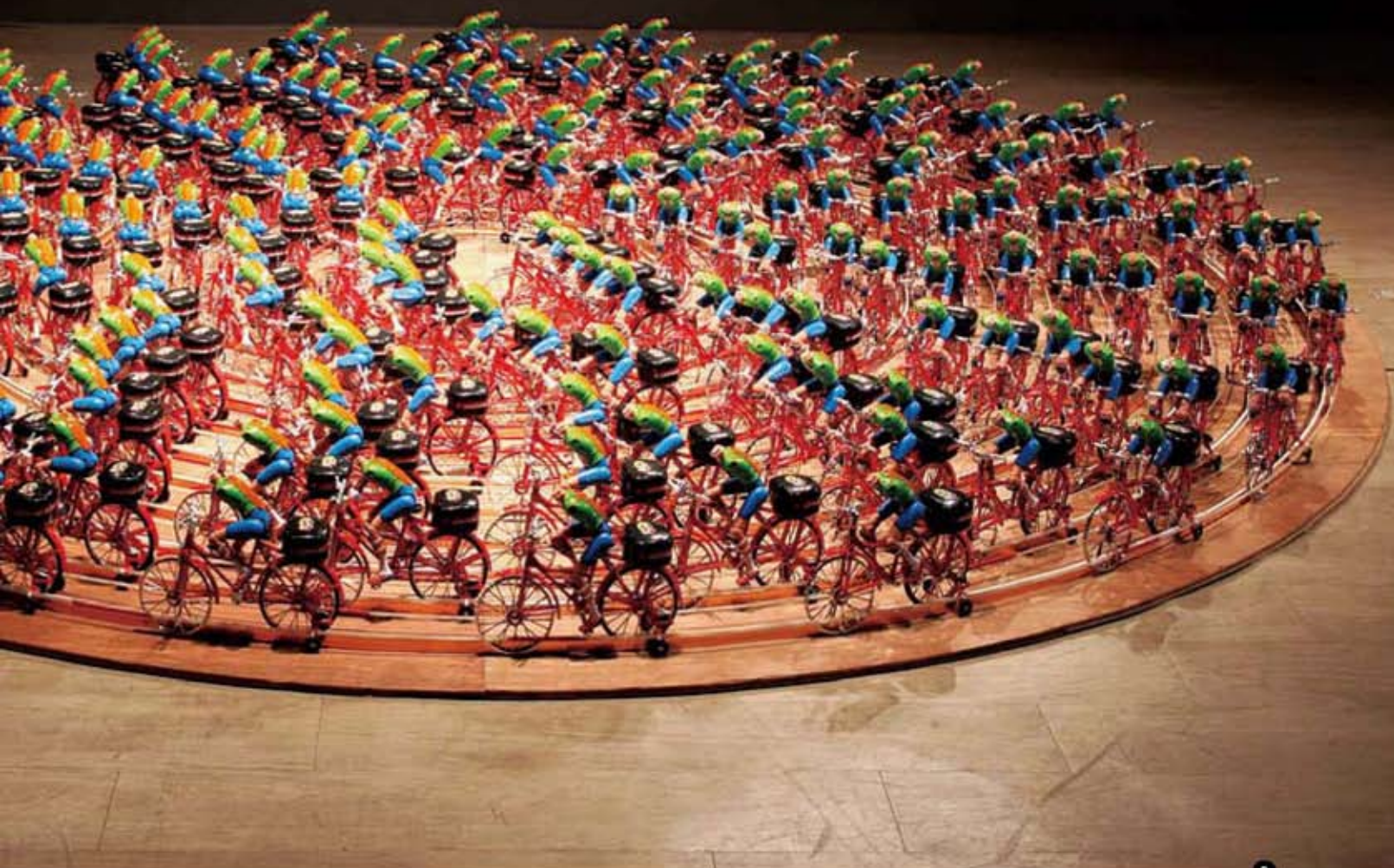
표지 작품을 보니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진다.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 스파르타투스의 배경인 아레나를 모티프로 제작된 선반 위에 의인화된 오브제 노호호를 인형들 배치했다. 혼자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던 노호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로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거대한 산업 구조 속에 갇힌 채 갈수록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인간사회의 단면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2011 서울시청작공간 퍼스티벌에서 NArt in Seoul Art Space 선정 예술가로 전시에 참여하는데, 소감은 어떻게? 공공미술 성격이 강한 전시다 보니 아무래도 작품을 설치하는 기간이나 전시기간 내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구경하는 시민들이나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좋다. 제약이 없는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들과 작품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작품을 관람하는 어둠에가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나? 작품의 의미에 대해 규정짓고 싶지 않다. 작품을 보는 사람과 느낌은 온전히 관람객의 몫이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마주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작업 계획은? 요즘은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음술 낭만주의〉展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Spectacleless Complex〉 시리즈를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물론 저금저령 사회 비판적 의도를 지닌 작품들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그와 더불어 이미 지릴 대로 지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형식의 작품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



◆ 금천예술공장 입주 작가로 활동했으며, 프랑스 세르지 국립고등예술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T DE PARIS CERGY)를 졸업했다. 2007년 광주 신세계 미술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2011년 개관전 〈Idea Of Complex part II〉을 열었으며 현재 〈음술 낭만주의〉 그룹전에 참여하고 있다.



2

1 〈Spectacleless Complex〉, mixed media, 3×5×2.5m, 2011

표지 작품인 〈Spectacleless Complex〉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산업구조 속에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인간사회의 단면을 표현한 것이다. 흔히 고개를 까막이미 추락하는 노호준 인형을 통해 현대인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유도한다.

2 〈Circling Complex〉, mixed media, 3,2×3,2×0,2m, 2010

예술과 함께 놀자!

서울시창작공간 &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서울 시청작공간의
방향과 — 비전

시민과 예술가의 행복을 위해

2009년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등 서울시 창작공간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예술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획자, 활동가, 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예감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던 지역재생을 위한 유희공간의 활용, 공공에 의한 예술창작공간의 조성, 지역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창작 예술촌 운영, 기획자에 의한 창작 레지던시 등의 요구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창작공간 모두가 시민과 예술가의 행복을 내세운 직업이고 실험이었다. 실험은 아방가르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무원, 활동가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여 년 전부터 다른 나라의 창작예술촌 사례들이 맹렬히 연구되고 회자되면서 프랑스 스쿼트(Squat) '로베르의 집'까지 화제에 올랐다. 나아가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의 도살장과 시장터에 만들어진 창작예술촌, 타이베이의 관공서를 리모델링한 예술촌과 가오슝의 부두 창고 거리를 예술특구로 만든 사례들도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부족한 예술창작공간의 마련'과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의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창조도시 등의 이야기들이 난립하면서 '유희공간'을 통한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예술창작 스튜디오'와 '예술가란 존재'의 가치가 새로이 매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많은 담론들이 모여 지역, 예술, 창작을 실험하는 공간들이 서울에 생겨났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매니저들은 학자, 예술가, 공무원, 정치가, 주민들의 요구를 한결같이 접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러한 사이 조금씩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과 창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반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창작공간이 짙어진 집을 열기 위해

이러한 통에 필자 같은 부주의한 연구자도 차츰 간단하고 경쾌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창작공간의 무게에 다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창작공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정책이 수요자와 대상자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끼



2

- 1 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 공연.
- 2 신당창작아케이드 전경.
- 3 신당창작아케이드 체험 공간 참가자들.
- 4 타이베이 예술촌.
- 5 홍콩 Cattle Depot Artist Village.



3

© 김규원



4



5

© 김규원

기 시작했다. 서울시창작공간만 보더라도 공공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성찰하고 작업할 시간도 모자라는 예술가나 행방등 갈 시간도 없는 담당자 모두에게 무거운 십자가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모든 일의 단초는 연구자, 학자, 교수 등 예술보다는 정책과 개념을 우선에 둔 무리들이 아닐까 싶는데, 그 와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버텨왔으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행일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제부터는 목표설정에 있어 간단명료한 부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창작공간이 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문화센터와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공동체사업이나 '문전성시 프로젝트'와 중복된 개념을 안고 갈 필요도 없다. 단, 지금까지 버텨온 결과를 평가하고 논의하여 단순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새로운 힘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순수예술의 '수월성'이 목표라면 그에 맞는 기간과 예술가 신장이 필요하며 평가 역시 혹독한 예술과 기획의 실험성에 대한 평으로 밀고 나가도록 행정이 반쯤 눈감아줄 필요가 있다. '글로벌'을 지향한다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공간이 단순해진다고 예술가들이나 총괄매니저들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민이나 낭비는 줄어줄 수 있다.

창작공간과 미켈란젤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서울시창작공간의 실험이 조금 더 지속된 다음에 이야기를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라도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창작공간에서 마음껏 맘 풀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작 스튜디오를 짓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과중한 책임을 또 많은 기획자와 예술가에게 자우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실험을 되돌이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창작공간에 관한 칼럼을 청탁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연히 관련 기사 두 편을 읽게 되었다. 하나는 2018년까지, 미국에서 예술 분야만 유일하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The Atlantic>의 기사였다. 다른 하나는 영국 문화 관련 기관들의 문화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측정이 속물적이고 쓸데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The Spiked>의 기사였다. 필자는 기사를 살펴보니 영국의 정책방향과 미켈란젤로의 가능성을 비교했다. 혹 우리가 창작공간에서 미래의 미켈란젤로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지만 창작공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한 우물을 팅 때 비판이나 결과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년의 역사, 4개의 미션, 11개의 공간

숫자로
살펴보는
서울시창작공간

>>1

서울시창작공간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단 하나의** 문화예술공간 고유 브랜드이다. 예술가와 시민들의 창작과 향유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08년 서울시의 컬처노믹스 정책에 따른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3

2008년 6월, 남산 드라마센터를 리모델링한 남산예술센터와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차례로 개관하면서 '서울시창작공간'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공간은 모두 11개가 되었고, 서울시창작공간은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예술공간이자 서울시를 대표하는 창작공간으로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4

창작, 소통, 향유, 나눔. 서울시창작공간의 **미션**은 이렇게 **4개**로 요약된다. 예술가들의 창작을 위한 레지던시 활동과 전시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창작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각예술을 비롯해 문학, 인문, 공연 등 장르 간 상호통섭과 나아가 예술과 산업의 만남, 지역문화 공동체 강화를 통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창작공간은 창작과 소통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민 커뮤니티 형성과 주민참여형 문화마을 만들기를 꿈꾼다. 또한 각종 예술교육 및 커뮤니티아트도 진행하고 있다.

>>9

서울시창작공간이 국내외 산업, 예술, 교육기관, 공간과 **양해각서(MOU) 및 업무 협정체결을 맺은 곳은 모두 9곳**이다. 2009년 9월 금천예술공장이 서울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문화산업진흥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신당창작아케이드가 12월에 (사)MK페션산업발전협회, (사)서울중앙시장은영화와 문화산업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 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



1

외 창작공간으로는 2009년 일본 요코하마시의 벵크아트1929를 시작으로 20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레지던시 앙가(Hangar), 네덜란드 스마트(SMART) 프로젝트 스페이스, 미국 뉴욕의 에이펙스아트(apexart)와 예술가 교환 및 프로그램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에는 호주 멜버른의 거트루드 컨템포러리(Gertrude Contemporary)와도 프로그램 약정 체결을 맺었다. 또한 문래예술공장이 2010년 6월 서울시직업센터 청소년직업체험예술교육 프로그램 관련 상호협약을 맺었고, 금천예술공장이 2011년 5월부터 이화여대병설 미디어 고등학교와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체결을 맺어 청소년 창의력 제발과 다양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1

현재 서울시내에서 **서울시창작공간**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모두 **11개**다. 2009년 6월 남산예술센터와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개관에 이어 10월에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인쇄공장이 금천예술공장으로, 신당지하사가 아케이드는 신당창작아케이드로, 또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던 자리는 연희문학창작촌으로 변신하면서

서울시창작공간이란 브랜드를 형성했다. 2010년에는 분래동의 칠공소 자리에 분래예술공장이 들어섰고, 성북구보진소가 있던 자리는 성북예술창작센터로, 관악구 은천동사무소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로 전환되었다. 2011년에는 홍은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가 홍은예술창작센터로 변신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공연예술가들을 위한 연습실로 문을 연 남산창작센터와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장애인창작스튜디오가 서울시창작공간이란 이름으로 운영되어 모두 11개의 서울시창작공간이 만들어졌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센터에서 남산예술센터와 남산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공간사업단에서 나머지 9개 공간을 운영한다.

>>56

서울시창작공간에서 국제 레지던시를 운영 중인 공간은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홍은예술창작센터 세 곳이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동안 56명의 해외 예술가들이 이 세 곳에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펼쳤다. 금천예술공장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 개국에서 온 22명의 예술가들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물렀다. 연희문화창작촌은 4개동 중에서 '들림'동을 국제 레지던시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1월 동독 출신의 소설가 안드레아스 글레저를 시작으로 알렉산드르 벨리호프(러시아), 크리스티안 크라흐트(독일), 옌리(중국) 등 32명의 저명한 해외 작가들이 연희의 품속에서 창작의 기쁨을 나누었다. 2011년 5월에 시각과 무용예술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개관한 홍은예술창작센터도 국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의 안무가 유미 오사나자와 말레이시아의 시각예술가 잇세(로슬리삼 이스마일)가 입주해 활동했다. 이밖에 분래예술공장은 예술가 호텔을 운영, 현재까지 200여 명의 국내의 예술가들이 활용했다.

>>399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 7개 서울시창작공간에 입주해 활동한 예술가 및 단체는 2011년 9월까지 총 399팀(개인/단체)이다. 2009년부터 공모를 통해 입주 운영단체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는 지금까지 38팀의 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였고, 금천예술공장에서는 국내의 예술가 및 단체 52팀이 활동하였다. 또 신당창작아케이드에는 공예를 비롯한 시각미술 예술가 및 단체 75팀이 입주했고, 서울시창작공간의 유일한 문학인 전용 공간 연희문화창작촌에는 181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찾아와 작품 탄생을 위해 예술혼을 불태웠다. 2010년 개관한 성북예술창작센터에는 예술치료 및 커뮤니티아트 관련 15개 단체가, 2011년 5월에 개관한 시각예술 및 무용 전문 공간인 홍은예술창작센터에는 모두 24팀의 개인 및 단체가 입주했다. 또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는 모두 14명의 시각 분야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하였다.

>>1,150

2009년 6월 서울시창작공간이 탄생한 후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일간지, 주간지, 방송, 온라인 주요 뉴스 등 언론에 소개된 기사건수는 모두 1,150건이다(월간지 및 블로그, 기타 언론은 제외). 2009년에는 260건, 2010년에는 360건이 기사화됐다. 또한 2011년에는 8월까지 530여 건이 집계되어 서울시창작공간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0,000

2010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7개 창작공간에서 9일 동안 동시에 열린 '서울시장작공간 페스티벌'은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예술 축제였다. 각 공간과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모두 1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창작공간 입주예술가를 중심으로 시각, 공연예술가 470명이 참가했고, 기획전시 및 아트마켓 등 축제 프로그램에 2,600개 작품이 참여했다. 또한 아트페어 및 아트마켓에 전시되거나 판매된 아트상품은 모두 1,400개였으며, 판매총액은 1,270만원이었다.

- 1 연희문화창작촌의 연희로양극장극장.
- 2 금천예술공장 전경.
- 3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문학영역 프로그램.



문화예술의 희망이 그곳에 있다

네 가지 키워드로
만나는
서울시 창작공간

창작



축제의 공간이 된 '글감옥' 연희문학창작촌

작가는 글을 쓴다. 커피숍이나 도서관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밀폐된, 혼자만의 공간에서 쓴다. 그래서인지 작가들끼리는 집필하는 공간을 '글감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랜 시간 스스로 글감옥의 수인이 되었던 작가들이 연희문학창작촌에 모였다. 모여서 글감옥을 축제의 공간으로 바꿨다. 한때는 그 출중한 외모로 못 여성의 마음을 흔들던 선배 소설가는 이제 화려했던 젊은 머리카락을 연신 끌어 올리며 후배들을 위해 고향에서 공수해 온 생선살을 저미고, 강원도의 눈과 소 울음을 빗하며 혼자 고독을 씹던 소설가는 이제 강원도 소 울음을 노래로 승화하여 뽑아내고, 서울서 자라 단 한 번도 폭풍이나 삼을 겪어본 적 없는 막내 시인은 저 장한 거름 냄새에 코를 찡긋거리며 어제의 흙을 뒤엎어 오늘의 흙을 새로 덮는 지혜를 배운다. 내가 연희문학창작촌에서 겨울과 봄, 두 계절을 옹골치게 누리는 동안 바야흐로 축제는 무르익고, 험뻐있던 창밖의 나무들은 어느새 저마다의 가슴에 '함께'라는 무늬의 봄꽃을 틔우고 있었다.

글_이정량 소설가, 2010년 연희문학창작촌 입주 작가

창작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 문래예술공장

내가 문래예술공장을 처음 접한 건 2009년 8월쯤이었다. 당시 문래동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모여들어 문래창작촌이라는 자생적 예술촌을 이룬 상태였다. 문래예술공장은 창작촌 내의 예술가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예술가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술가들에게 다가서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참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문래예술공장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극단 몸꿀'은 2011년 문래예술공장의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 MAP에 〈녹슨 시간들〉이란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극장과 레지던스룸, 그리고 작업실에 이르는 모든 공간을 우선적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우리 팀은 문래예술공장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4층 세미나실에서 자유롭게 회의했고, 1층 작업공간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으며, 4층 샤워실에서 땀을 씻어냈고 3층 주방에서 맛있는 밥을 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다. 깨끗한 건물에 음식냄새를 솔솔 풍겨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문래예술공장 사람들은 더욱 맘껏 사용해 달라고 했다. 난 잠감 있고 사람냄새 나는 곳, 창작자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하는 문래예술공장이 꽤나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술가들이 진실로 숨 쉬게 하는 방법을 안다. 문래예술공장은 문래동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힘쓴다. 이는 예술가들

이 맘 편히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공장 측의 끊임 없는 노력이라 생각된다.



글_신혜원 문화이끌이
풀 대표, 문래예술공장
MAP 프로젝트 선정 단체
극단 몸꿀의 프로듀서

소통



교류의 기쁨을 맛보다 금천예술공장

나는 지난해 9월, 서울시장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을 통해 바르셀로나에 있는 앙가 국제창작 레지던스에서 3개월간 교류 작가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앙가에서는 지원서를 받을 때 창작제회서도 함께 받는다. 나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사주를 보며 욕망에 대한 인터뷰를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써냈다.

앙가에서는 스페인,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들과 함께 지냈다. 스페인 북부지방 갈리시아에서 온 작가는 보름달이 뜬 밤, 내게 자신의 고향에서 하는 퇴마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키다리 그릇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불을 붙여 국자로 휘저으며 주문을 외었다. 그 퇴마의식을 통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진 나는 앙가의 동료 작가들의 사주를 봐주며 욕망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앙가에서 일하는 기획자 중 한 명이 바르셀로나 아시아센터에 나를 연결해 주었다. 아시아센터는 내 사주 프로젝트를 위해 신문과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고 넓은 방을 마련해 주었다. 통역과 진행도 도와줬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사주를 봤다. 그후 프랑스 인스티튜트 갤러리에서 일본, 브라질 작가와 함께 그룹전을 열게 되었다. 나는 사주 노트와 복채를 전시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언어를 초월해 소통한 덕에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나의 사주 프로젝트는 여러 문화기관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교류 속에서 무사히 끝이 났다.

글_이수영 금천예술공장 1기 입주 작가, 2010년 스페인 앙가 국제창작 레지던서 체류.

소중한 소통의 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

사실 문화예술 영역의 여러 작업 중, 기획자가 공간에 대한 재약을 가장 적게 받는다. 기획자는 거창한 작업장도, 소비자와 실제로 만날 공간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문화와 공간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붙이면,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어쨌거나, 문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공간은 문화영역에서도 권력이 되었다.

특히 홍대 앞에서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사치다. 바다비라는 클럽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130여 밴드가 모여 공연을 한다. 이런 모습은 이제 홍대 앞에서 어떤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난해 홍대 앞 예술가들은 반지하 작업실에서 살며 음악을 하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이후 두리반의 '2011 전국자립음악가대회 뉴타운컬처파티 51+', 음악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유데이 페스티벌' 등이 열렸다. 공간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전투적인 것이 현실이다.

어쨌면 현재의 예술은 공간의 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작공간의 역할은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정주해 있는 공간은 발 디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공간들이 더욱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예술 활동을 했으면 한다. 아직까지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에게 공간은 너무 비싸고, 너무 적다. 서울시장작공간의 확장을 기대한다.

글_김성운 내용연구소,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년 정기공모사업 선정 작가



향유

예술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우리는 서로를 몰랐다. 무용, 미술, 연극, 문학. 어쩌면 예술이란 이름으로 잘 통하겠단 싶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와도 마찬가지였다.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이라는 포맷이 주는 매력은 우리를 한마음으로 모아게 했다.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말은 서로의 마음을 뺏아가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아이디어는 넘쳐났지만 어딘가 2% 부족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투른 소통과 쑥스러운 배려의 지난한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듣고, 그리고 마음을 살피고,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 회가 거듭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다. 우리가 선택한 책,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제제처럼 모두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음모임'이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덕분에 모이게 된 이들이 다시 '책 읽는 서울, 책 예술과 만나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려의 길을 따라 마지막 거인과 소통하기'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서울시창작공간에서 하는 일들은 신기한 대가 있다.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지지고 볶으며 일어나는 엉뚱하지만 가치 있는 활동을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일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고 행할 데지만, 그것은 가슴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하고 빛나는 순간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

글 김국희 서울문화재단 TA(Teaching Artist)과정 수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문학영역 프로그램 '읽는 책, 듣는 책, 보는 책' 기획 및 운영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 성북예술창작센터

2010년 10월, '일반인을 위한 색소폰 강좌'를 통해 처음 성북예술창작센터를 접했다. 예전 보건소 자리에 문화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나와 별 관계없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일하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참여 의지만 있으면 환영이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모인 인원은 나를 포함해 5명. 가정주부를 비롯해 대학원생, 회사원 등 언뜻 음악이나 예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처음 내걸었던 강좌의 70% 이상 참여라는 조건을 무색케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수업이 부족해 월요일마다 자율적으로 나와 연습을 할 정도였다. 두 강사님의 세심한 지도로 12월에는 성북구청에서 첫 발표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발표회를 마치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허전한 마음도 들어 이번에는 밴드 수업에 참여해 취미로 몇 년간 쳐 왔던 기타를 다시 시작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 강사님의 지도하에 하나의 곡을 합주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뿌듯하다. 합주만큼 세대 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을까. 역시 수개월의 연습 후 우리는 '월요밴드'라는 팀명으로 홍대 클럽 무대에서 데뷔(?)했다.

평소 음악을 즐겨 듣고 밴드 활동도 5~6년간 해 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열댓 예술과 1%의 관계도 없어 보이던 나 같은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퇴근 후 센터에 들러 삶을 풍요롭게 살찌울 수 있다. 인생은 아는 만큼, 행동한 만큼 즐길 수 있다고, 성북예술창작센터를 비롯해 여러 문화공간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바로 우리 주민들의 몫 아닐까.

글 정희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STI) 물리연구센터 연구원,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색소폰 밴드 수업 참여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의 감동 홍은예술창작센터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창작센터 개관 후, 나는 문화예술이 전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홍은의 첫 전시는 설치미술가 최중운의 〈Vertical Sea-red〉였다. 개막 첫날, 작품의 설치를 축하하기 위한 이나현 안무가의 공연을 보았는데 그것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인체의 아름다운 동작이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전했다. 우리 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다. 서대문문화회관에서 열린 〈춤, 열다〉 공연도 관람했다. 구민들과 함께한 한여름 밤의 무용 공연은 많은 아들에게 기쁨을 선물했다. 회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섬세한 율동, 그리고 몸짓이 주는 아름다움에 많은 이들이 행복을 가슴에 안았으리라 생각된다.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잔잔한 감동은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지금도 가끔 아름다운 색채와 음악, 그리고 공연에 온 열정을 쏟아 붓던 무용가들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 환한 얼굴과 빛나는 눈빛을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을 소중하게 떠올려본다.

글_유지희 사진_서대문구청 블로그 사진기자



나눔

나눔으로 행복한 주말 나들이 신당창작아케이드

매주 토요일 오후, 나와 딸은 서울중앙시장 지하로의 주말 나들이가 예약되어 있다. 공예 작가들이 모여 있는 신당창작아케이드가 그곳이다. 이곳에서는 입주작가들이 직접 진행하는 갖가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 입소문이 나 소소한 주말의 기쁨인 체험 기회를 땀길까 걱정도 해보지만 좋은 소문은 자연스레 퍼지게 마련일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매달 바뀌는 반면, 작년 봄부터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손뜨개 체험'이다. 수예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미 사장님은 토요일마다 '강 선생님'이 된다. 강 선생님은 뜨개질을 통해 나눔의 봉로가 되었다.

오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이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점차 퍼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갖가지 색의 물품이 구비된 알록달록한 이곳 청실수예집에 감도는 공기는 늘 푸근하게 느껴진다.



글_권현숙 신당창작아케이드 '손뜨개 체험' 참여.

봉사를 통해 발견한 희망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올여름,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던 어느 날 처음으로 장애인창작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미국 유학 중인 나는 방학을 맞이해 한국에 온 참이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알아보던 중, 우연히 장애인창작스튜디오의 〈와장창〉展 홍보물을 발견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데다 장애인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욱 뜻깊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

14일의 전시기간 동안 4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보조를 하면서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과 함께 숨 쉬고 예술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봉사 기간 동안 작가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입주 예술가의 작품을 구입까지 해 더욱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 되었다. 앞으로 장애인창작스튜디오가 더욱 성장해 입주 예술가의 역량이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 봉사한 14일 동안, 나는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심은희 사진고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재학,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와장창〉展 봉사활동.



연인, 가족,
싱글을 위한
맞춤 페스티벌
가이드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100배 즐기기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료 · 시민창작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창작공예공방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장애 미술작가 창작 공간



연인들을 위한 코스

감수성 총만한 연인들을 위한 코스 >>

금천예술공장 ⇒ 문래예술공장 ⇒ 선유도한강공원

10월 초순의 청명한 가을 날씨는 축복과 같아서, 연인과 나란히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더없는 행복이다. 허나 did까다로운 취향의 그녀(혹은 그)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남은 계절이 더 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자! 그와 그녀의 감수성을 채워줄 다양한 전시를 즐겨보자.

금천예술공장에서는 3층 PS333에서 10월 15일까지 허태원 작가의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결과를 전시한다. <꽃을 심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전시는 단순히 버려진 화분에 꽃을 심는 행위를 넘어서, 꽃을 매개로 작가와 이웃이 다양하게 소통한 과정이 담겨 있다.

문래예술공장에서는 1층 스튜디오M30에서 10월 5일까지 권용주 작가의 <폭포>를 전시한다. 작가가 문래동에서 직접 수집한 다양한 일상의 소재들이 어떻게 거대한 인공폭포로 조형화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문래예술공장 맞은편 문래창작촌 거리의 예술벽화 앞에서 담살 돌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남기는 것도 연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선유도 한강공원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유망예술 가육성지원사업(NaRT)에 선정된 서울시창작공간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총 9동의 컨테이너에서 양숙현, 장석준, 차혜림, 배종현, 유비호, 정승, 정정주, 허태원, 윤주희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로, 휴식과 같은 자연의 풍경 속에서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일 것이다.

틀에 박힌 연애방식은 지루하기 마련. 일상적인 전시장과 공연장을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도시와 자연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즐기는 예술. 허기질 연인을 위해 작은 도시락까지 덤으로 준비한다면 행복에 겨워하는 연인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휴가 두려운 학부모를 위한 코스 >>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선유도한강공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굳이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버려가며 시외로 향할 필요도, 내 아이를 위해 값비싼 사설 프로그램에 출석가며 등록할 필요도 없다. 연휴를 맞아 서울시 창작공간 곳곳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10월 1일 가족 단위의 시민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위한 코스



술로부대를 위한 코스

공방 워크숍을 진행한다. 1기 입주작가인 NNR의 진행 아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작은 물건을 가져와 리폼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옥상의 하늘공방에서는 목재의 남은 조각을 이용하여 의자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호랑놀이가'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10월 2일에는 6~10세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의 예술감성 함께 채우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잼스틱 <두드리는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선유도 한강공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예술작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다. 골판지 등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새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머그컵을 만들 수도 있다. 나무를 이용하여 미니 화분과 입체모형을 만들 수도 있으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트 페이퍼 및 수제노트를 제작할 수도 있다.

단,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예약은 필수. 성북예술창작센터 및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사전 접수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유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및 예약 후에 참여할 수 있다.

혼자여도 괜찮아! 술로부대를 위한 코스 >>

홍은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창작촌 → 선유도한강공원

혼자라는 이유로 움크려 있을 필요는 없다. 혼자여서 더 즐거운, 혼자여서 더 깊이 사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정들었던 텔레비전과 잠시 이별해 보자. 가벼운 옷차림으로 방문 앞을 나설 것. 몇 걸음만 떼면 당신 앞에 더욱 다양한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홍은예술창작센터에는 지역민을 위한 무용 워크숍과 무용 공연이 준



일상탈출을 위한 코스

비되어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무용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공간 곳곳에 설치된 전시 작품과 영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감성적인 문학소년이나 문학소녀라면 연희문학창작촌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9월 30일에는 작가의 집필실을 견학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10월 1일에는 <가을의 시(詩), 시(詩)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낭독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선유도한강공원까지 작가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선유도에서는 잠시 한숨을 돌리자, '아트마켓: 도시樂(락)'에서는 신당창작아카데미 작가들의 공예작품을 만날 수 있다. 눈요기만으로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일상 탈출을 꿈꾸는 그대를 위한 코스 >>

선유도한강공원 야간공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오감을 열고, 엉덩이를 들쭉이며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대들,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펼쳐지는 선유도 야간공연에 주목하길 바란다. 통자루 무용단의 체험 무용 공연에 참여하여 흥겹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고, 수미아라 앤 뽀스 뚜베르의 구성진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것도 좋다. 이외에도 시 낭송 행사, 퓨전국악 연주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본인의 취향에 따라 취사선택하면 된다. 봄비는 공연장을 피해서 공원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따위를 식히며 가을밤을 만끽해 보자. 보다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쌀쌀한 밤 기온에 대비한 겹옷과 갈증 난 목을 축일 수 있는 음료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일시 9월 30일~10월 3일 장소 선유도한강공원

● 프로그램 일정 ●

- 공연(NaT 선정 예술가, 거리아티스트, 기화공연 등) 10월 1일 ~10월 3일 12시~21시 상시 진행
- 나트(NaT)전시 9월 30일~10월 3일(선유마당)
- 기화전시 9월 30일~10월 3일(원형극장 앞마당)
- 아트마켓 9월 30일~10월 3일(선유마당)
- 시민창작실 9월 30일~10월 3일(선유갤러리 앞마당)

행사	일시
가족팔찌 리움	9월 30일 · 10월 2일 14시, 10월 1일 15시, 10월 3일 13시
새집 채색	9월 30일 14시, 10월 1일 · 10월 2일 13시
열쇠고리 진공드로잉	9월 30일 14시, 10월 1일 · 10월 2일 15시, 10월 3일 13시
페이퍼 /수제노트 북아트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일 · 10월 3일 14시
입체모빌 /나무화분 목공	9월 30일 · 10월 2일 · 10월 3일 14시, 10월 1일 13시
머그컵/넙바반침 채색	10월 1일 15시, 10월 2일 · 10월 3일 13시
착한 화분 디자인	10월 1일 13시, 10월 3일 14시

- 홍보관 9월 30일~10월 3일(선유갤러리 앞마당)
- 루어 프로그램 9월 30일 13시~19시, 10월 1일 11시~16시, 10월 2일 11시~15시(창작공간 및 선유도한강공원)

뮤지컬의 문법,
감성의 문법

작곡가

강소영



● 얼마 전 한 매체가 뮤지컬 배우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장소영이 가장 신뢰하는 뮤지컬 작곡가로 뽑혔다. 2004년 〈하드락 카페〉로 뮤지컬에 첫발을 디딘 그녀는, 현재 세 작품 정도 작곡하고 열 작품 정도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도 〈피맛골 연가〉와 〈늑대의 유희〉이 동시에 상연되고 있다. 국내에 뮤지컬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던 시절, 그녀는 한 작품 한 작품 성실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예술종합학교 뮤지컬학부 학부장으로 취임해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장소영 작곡가를 만났다.

자기도 여전히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곳이 거의 없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뮤지컬 작곡을 하게 됐나요?

대학생 때 〈레 미제라블〉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한 10번은 봤을 거예요. 대사나 노래를 다 외울 정도였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마니아였죠. 뮤지컬 작곡을 배울 수 있는 데는 없고 우선 연극판으로 갔어요. 반주도 해주면서 연극에 관심을 가졌어요. KBS 〈열린 음악회〉에서 아르바이트로 편곡 일을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클래식 음악을 팝으로 편곡하거나 가요를 클래식하게 편곡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배치하는 일은 작곡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오케스트라 반주로 가요를 연주하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음악과 가까워졌어요. 생각해 보면 저는 쓰임이 있는 음악 작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음악을 하고 싶다고 유명한 분들 찾아가 그 밑에서 반주나 작곡을 해보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큰 힘이 됐죠.

뮤지컬 음악은 다른 장르 음악에 비해 음악적 비중도 높고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이 컸어요.

그전에 오페라를 두세 작품 했고, 계속 작곡 작업을 해와서인지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작곡을 하겠다고 한걸요. 〈하드락 카페〉는 처음에 음악감독으로 제안이 왔던 거예요. 뉴욕을 오가면서 뮤지컬도 많이 보고 뮤지컬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졸업하고 30대 초중반까지는 계속 다른 작업을 했어요. 〈하드락 카페〉에서 제안이 오길래 기회다 싶어 제가 먼저 작곡을 하고 싶다고 한 거죠. 부담보다는 열정이 더 컸어요. 정말 신나서 했어요.

이후 줄곧 뮤지컬 작업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많은 것을 느끼셨을 듯합니다. 뮤지컬 음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음악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뮤지컬 음악은 장거리 마라톤 같아요. 대중음악은 3~4분 내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뮤지컬 음악은

2시간에 걸쳐서 해야 해요. 지루하지 않도록 노래 배치를 하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하죠. 코스 요리에 비유하면 맛을 거예요. 요리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에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전체의 짜임새나 하나 하나의 구성으로 평가되는 코스 요리요.

말씀을 듣고 보니 뮤지컬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게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게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글을 쓸 때도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가 계속 쓰다 보면 능숙해지잖아요. 뮤지컬 음악도 계속하면서 뭔지 알아갔던 거 같아요. 뮤지컬 음악은 말하는 속도와 노래 템포가 같아야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상하면 반응이 눈에 바로 보여요.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하다 보니 알게 되는 거죠. 슬픈 감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슬픔의 이유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주로 창작 뮤지컬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흔히 라이선스 뮤지컬과 비교하면서 창작 뮤지컬이 작품상에서 차이가 난다는 반응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라이선스 뮤지컬은 제작 단계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고 시장에서 몇 백만 명이 선택한 작품을 국내 프로듀서가 들여온 것이잖아요. 창작 뮤지컬은 병이라고 치면 어떤 모양으로 할지부터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여러 차례 검증된 것과 처음 시장에 나오는 것을 단순 비교하면 속상하죠.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창작자가 없다는 등 매도하는 것이 슬펐어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한국 영화는 안 본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영화인들이 고생하면서 한국 영화를 발전시켰고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요. 창작 뮤지컬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라이선스 뮤지컬로 결국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창작 뮤지컬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한국사람이 기발 쓰고 연기하는 거 어색하잖아요. 우리 정서, 우리 이야기라는 점이 큰 경쟁력이죠. 우리말을 쓰니까 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노래는 말 자체를 활용해 쓰거든요. ‘야’ 발음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으’ 발음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라이선스 뮤지컬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사와 음악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되기 힘들죠. 어순이 다르다 보니 어색한 도치법도 많고, 앞으로는 우리 이야기를 더 좋아해줄 거라고 봐요. 외국에 나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음악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각 분야의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독창성을 살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
대중예술을 할 거라면 굉장히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예술이라는 말로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나 이런 뮤지컬이야

한국 뮤지컬의 독창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위 뮤지컬 문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형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스타일 같은 것인데, 작곡가님의 작품도 뮤지컬 문법에 충실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 작품을 배울 때가 없으니까 4대 뮤지컬이나 유명 뮤지컬 연구를 많이 했죠. 뮤지컬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오프닝과 엔딩은 화려하게 하고, 3분의 2 지점에서는 남자 아리아가 나온다. 합창은 네 개 정도 배치해야 한다. 오중창은 어느 어느 지점에서 나온다. 꼭 지켜야 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흥행 뮤지컬들을 보니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만의 독창성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것을 알고 이후 나만의 것을 넣어 대중을 리드하는 것이 제 작업이라고 생각했죠. 하다 보니까 공식이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에도 기승전결이 있듯 작품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지루해지니까 쇼를 넣어서 흐름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뮤지컬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이런 패턴이 생긴 거예요. 최근 2~3년 동안은 그런 문법에 따르지 않고 독창적인 우리 정서를 표현하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약기를 쓰고 노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형제는 용감했다〉나 〈피맛골 연가〉는 모두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곡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뮤지컬 문법에 충실하지만 〈피맛골 연가〉가 좀 더 체화된 느낌이랄까.



1

여유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피맛골 연가〉에 열두발 상모를 돌리는 사람이 둘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은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더 잘하시는데 이상하게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여유로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경륜이 필요한 거죠. 여유가 생기려면 아등바등하는 과정을 겪어야 해요. 먼저 쓴 작품일 수록 작곡법에 따라서 쓴 곡이 많아요. 있는 척을 많이 했던 곡들이에요. 내가 100가지 화음을 안다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에는 나를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안 알아주는 걸까 속상했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다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아는 것을 다 써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만드는 음악일수록 좀 단순화되면서 문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는 국악기 사용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는 용감했다〉 랩 부르는 부분에서 해금을 살짝 넣었죠. 다음 작품 〈영웅을 기다리며〉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넣어왔고, 〈피맛골 연가〉

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죠. 〈투란도트〉는 전체적으로 서양음악인데도 넣어봤더니 괜찮던데요. 국악기가 우리 것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국악기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국악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플루트보다도 대금이 훨씬 깊이가 있어요. 똑같은 슬픔이라도 대금으로 표현하는 슬픔이 우리 정서에 더 잘 맞아요. 그런 것들은 국악기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음악이 음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라면 한국음악은 음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그 즈음에서 소리가 나게 하잖아요.

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을 줘요. 마네 그림처럼 선명하지 않지만 감성적으로 깊은 느낌이에요. 서양악기의 선명한 색깔에 습하지 하나를 붙여서 편안해지는 것 같은 효과죠. 〈피맛골 연가〉 작업하면서 국악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고 아이디어도 얻었는데, 정말 국악이 좋아서 하는 사람 연주를 들으면 신명이 나요. 산나는 거랑 신명이 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점점 신명이 나는 음악이 좋아져요.

작품이나 곡의 스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뮤지컬은 협업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함께 결정해요. 우선은 제가 임의



1 <늑대의 유혹>
2 <피맛골 연가>
3 <와이키키 브라더스>

로 음악 스타일을 결정하고 스태프들에게 브리핑을 하죠. 요즘은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는 게 트렌드예요. 한 장르가 계속 나오면 지루할 수 있죠. 그렇다고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채도를 맞추는 편이에요. 장르는 그때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돌이 싸우는 장면이라고 해요. 이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음악을 썼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쪽으로 해보겠다고 해요. 말로만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무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음악은 실제로 작곡하지 않은 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작곡을 하고 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예시를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사전에 그런 준비를 다 하려면 무척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

국악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플루트보다도 대금의 훨씬 깊이가 있어요. 똑같은 슬픔이라도 대금으로 표현하는 슬픔이 우리 정서에 더 잘 맞아요. 그런 것들은 국악기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팀 작업이 중요하죠(장소영 작곡가는 TMM이라는 음악작곡 조직의 대표로 공동 작업을 한다). 우리가 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작곡을 함께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예요. 드라마 작가 그룹도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잖아요. 이번에 <늑대의 유혹>을 작업할 때 특히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의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인데 제가 아는 노래는 몇 곡 안 됐거든요. 그들은 제목만 들어도 척척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저는 결코 따라갈 수 없죠. 대신 어린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드라마화하지 못하니까 그런 작업은 제가 하죠.

영감과 테크닉 사이

<늑대의 유혹> 외에도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작업했습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은 아무래도 일반 뮤지컬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실 거 같은데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7080 가요를 사용했잖아요. 그때 가요들은 가슴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아서 뮤지컬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요즘 노래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식으로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냥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와 매치시킬 때 재밌더라고요. <늑대의 유혹>은 요즘 노래에서 300여 곡을 선택하는 작업부터 했어요. 그것을 다시 이별 이야기, 사랑 이야기 등 11가지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템포도 빠른 곡, 느린 곡, 중간 곡으로 나누고요. 이런 사전 조사를 팀으로 하지 않으면 일이 너무 많아져요. 대본에서 이런 가사의 곡이 필요하다고 하면 찾는 거죠. 우리 팀은 작곡만이 아니라, 편곡도 하고 배우 보컬 티칭도 해야 해서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어 하고 있어요. 만약 혼자 진행하면 3년은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린다고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최근 들어 주크박스 뮤지컬이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객 입장에서 공연을 볼 때 아는 노래가 나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요. 하지만 작곡가로서는 좋아하는 형식은 아니죠. 가사가 정해져 있어서 상황에 딱 맞는 곡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원곡을 그대로 들고 싶은데 가사나 편곡이 바뀌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죠. 원곡의 색채를 그리워하

는곡인지, 어느 정도 변형이 허용되는 곡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감성에 호소하는 곡들은 편곡을 삼하게 하면 거부반응을 보여요. 이문세 노래는 이문세 스타일로 듣고 싶은 거죠. 원래 가요 템포를 그대로 공연에서 사용하면 지루하게 느껴져요. 빨라졌다는 생각이 안 들게 빠르게 하는 것이 가술이예요.

템포를 컨트롤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탁월하신가 봐요.

큰 음식점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면 물 끓이는일부터 하다가 ‘언젠가는 칼을 잡을 수 있을 거야’하고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큰 음식점에서 맛만 보고도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뮤지컬 음악을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회사로만 돌고 싶은데, 지금은 과정이예요.

작곡 이외에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작곡과 음악감독을 겸할 때 음악감독만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작곡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기 때문에 음악감독을 해요. 음악감독을 하다 보면 곡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작곡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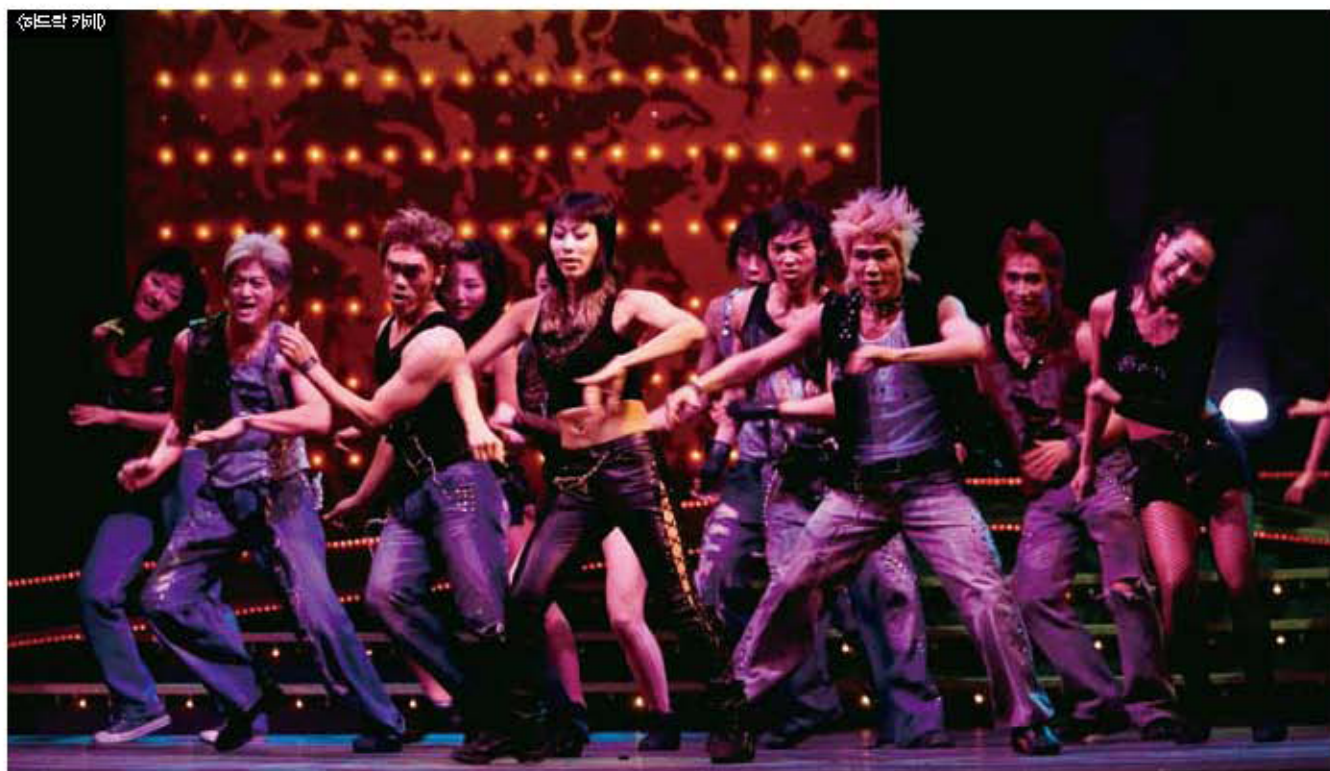
너무해>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라이선스 공연은 음악감독으로 일했는데, 작곡가가 존경스러워서 작품이 만들어진 경위를 알고 싶을 때 참여하죠. 앞으로 우리 팀에서 저는 음악감독 타이틀을 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작곡은 영감보다는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중예술을 할 거라면 굉장히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예술이라는 말로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 보는 것을 싫어해요. 사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베토벤은 아홉 개의 교향곡을 썼어요. 수많은 피아노곡을 만들었죠. 그걸 그대로 옮기는 데만 3~4년은 걸릴 거예요. 멜로디 모티프를 잡아내는 게 영감이예요. 그 다음부터는 테크닉이죠. 작곡을 많이 할 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부딪히면서 물으로 익혀왔는데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늙었겠죠. 10년 후에도 지금 만든 작품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지꾸 말로 포장하려들지 않았으면, 계속 작곡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글 박병성 옮긴 <The Musical> 전집형. 드라마와 노래가 결합되는 양상에 관심이 많고 창작 뮤지컬에 애정이 깊다. 늘 좋은 사람을 꿈꾸지만 성취는 없다. 사진, 최성필.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이자.

better together

coffee
brunch
drinks
beer
wine
desert

탱고에 바친 청춘과 열정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처음에는 게임 음악과 닮아서 탱고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 둘 사이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공격적이고 격렬한 정서였고, 그렇게 발을 돌린 탱고의 세계 속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반도네온이라는 악기였다. 처음에는 오르간 대용으로 독일에서 개발되었던 악기. 교회에서 쓰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건너갔는데 정작 화랑가에서 더 환영받았던 악기. 그러다 탱고의 중심이 된 악기. 쓸쓸하고 소박한 듯하면서도 풍성한 질감의 소리를 내는 악기. 여전히 아코디언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악기.

고상지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와 서정을 품은 7kg짜리 악기를 들고 현해탄과 태평양을 건너갔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탱고의 느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순정마초〉나 〈돌이킬 수 없는〉 등에서의 절묘한 반도네온 연주로 그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무모하리만치 과감한 추진력으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정준'을 꾸려가는, 그러나 어느 쪽이건 탱고에 대한 열정만큼은 스스럼없이 발산하는 젊은 반도네

온 연주자 고상지를 만나보았다.

반도네온을 위해 떠난 아르헨티나 유학

'국내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 블로그를 보니 진짜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업 연주자로는 유일한 건가요?

사실 그 '국내 유일'은 MBC 〈무한도전〉에서 그렇게 소개되는 바람에 알려진 거예요. 전에 가인의 〈돌이킬 수 없는〉을 녹음했을 때도 '국내 유일'이라고 소개되긴 했지만 〈무한도전〉의 영향이 컸지요. 저 말고도 하림 씨도 반도네온을 연주할 줄 알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연주자가 세 분 정도 계신데 연주할 줄 아는 분들은 더 많을 테고요. 그러니 전업 연주자로도 제가 혼자서는 아닌 거죠. 재미있는 것이 하림 씨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중에 반도네온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분이 반도네온 연주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림 씨가 여러 군데 소개해주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일반 음악팬들 입장에서 반도네온과 아코디언은 언제나 헛갈리는 악기입니다. (웃음) 연주자로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코디언은 건반이 있고 반도네온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프렌치 아코디언도 건반이 없거든요. 소리의 차이를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배우기 어려운 악기라고 들었어요.

다른 악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다만 반도네온의 경우는 오른손과 왼손의 공통점이 없고, '오픈'과 '클로징' 때도 규칙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동시에 외워야 해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헛갈리죠. 게다가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많아요. 바이올린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올린도 힘을 주는 것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가요. 반도네온도 그래요. 음색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럼 그 반도네온의 매력이 있다면요? 처음에는 반도네온 자체보다는 탱고의 매력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어쩌서 반도네온이었나요? 탱고를 위한 악기라면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는데.

우선 반도네온의 매력이라면, 공격적이고 양갈진 소리? 그리고 저 피아노도 치는데요? (웃음) 피아노, 기타, 베이스, 가야금 등 모두 조금씩 배웠어요. 하지만 반도네온으로 방향을 잡은 건 일본의 유명한 반도네온 연주자인 고마츠 료타 선생님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승이라는 존재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사제관계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반도네온을 연주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독학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6개월 정도 연습하고 거리공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클럽에서도 연주하게 됐는데 그때 고마츠 료타의 한국 팬이 선생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혼자 힘내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그 메일을 읽고 료타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거지요. 힘내라고.

그렇게 배우다가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셨잖아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 공연이 잘 안 돼 총동적으로 떠났다고 하던데요.

음...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3년 동안 일본을 왕래하면서 료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2~3주 머무르며 배우고, 돌아와서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나 세션 등을 하면서 체류비용을 마련하고, 그러던 와중에 엔화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아르헨티나에 가서 배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예전에 정재형 씨 공연이 잘 안 풀렸던 날에 "아르헨티나 가야겠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고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에밀리오 발카르세 오케스트라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어떤 학교인가요?



한국과 비교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대'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학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었고 탱고의 전성기를 다시 찾아오는 뜻에서 만든 오케스트라(스페인어로 '오케스트라'라는 뜻)였는데 그게 시의 지원을 받다 보니 학교 비슷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석 입학이라고는 하지만 아예 문화가 다르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서 반도네온을 연주해요. 삶의 일부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레슨도 받았고 혼자 몇 시간씩 연습도 했고..., 그러니 오디션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201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귀국했습니다. 일본의 탱고와 아르헨티나의 탱고 모두를 경험한 입장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요?

일본의 탱고라고 하긴 어렵고, 저로서는 '고마츠 료타의 탱고'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녹음할 때, 잘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맞을 때까지 계속 녹음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조금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가는 차이 같은 건 있어요.

그럼 서울의 탱고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하는 팀들 자체가 없으니까. 저야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연주할 때 객석에서 오는 분위기의 차이 같은 건 있나요. 일본과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 탱고를 재현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 예를 들면 어떤 전투 장면을 상상하면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한국 사이의 어떤 공이라고 할까, 그런 거요.

일본에서 연주할 때는 응원받는 입장이었어요. ‘힘내라 상지!’ 이런 식으로. (웃음) 그래서 분위기 같은 걸 말하기는 어렵고요, 아르헨티나는 환호와 열광. 연주할 때 정말 기뻐해주고 솔로를 멋있게 하면 악단도 칭찬하고 감탄하면서 연주해요. 공연 중에 무척 자유롭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비평적인 면이 있어요. 살벌하기도 하고, 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먼저 평가받고 좋으면 세계에 내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래요. 연주한 다음에는 공연 평도 찾아봐요. 안 좋은 말 없나 하고, “저건 탱고가 아니다”라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확실히 한국에서 연주하면 좀 무서워요.

당장의 연주를 잘하는 것이 목표

하림, 정재형, 김동률 등 ‘음악성 있는’ 뮤지션들과 자주 작업합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었나요?

맨 처음 알게 된 건 하림 씨였어요. 로타 선생님께 배우던 중이었는데, 반도네온을 연주한다는 인연으로 저랑 하림 씨랑 어떤 여사분이 ‘반개’를 썼어요. 그때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가까워졌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연주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하림 씨가 제게 일거리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일이 김동률 씨 콘서트였어요. 그런데 김동률 씨와 정재형 씨가 친한 사이라 자연스럽게 정재형 씨를 알게 되고, 또 그러다 윤상 씨도 알게 되고,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인연이 〈무한도전〉에서도 빛을 발했지요. 예능 출연 이후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반도네온 문의 메일이 많이 와요. (웃음)

배우고 싶다고요?

네. 악기부터 사야 한다고 그러면 그 악기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다시 묻는데 악기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오고... (웃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반도네온 연주 외에 좋아하는 게 있나요? 무술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춘권을 배웠는데 2주밖에 못 배웠어요. 배우자마자 바로 다쳐가 지고. (웃음)

좋아하는 만화는 〈배가본드〉(감독 미야모토 무사시를 주인공으로 한 일본 만화)라면서요. 거기다 건지단의팬이고, 원래 무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재미있는 건 그런 무술의 가르침을 그대로 연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본드〉에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풍뎡이 눈사람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며 배울 수도 있거든요. 재미 이상의 가르침이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규 음반 계획은 없나요?

내년에요. 지금은 음반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트리오 음반인데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 씨가 리더예요. 그 작업 끝난 다음에 녹음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워낙 많아 시간이 없기도 해요.

본인이 들려주고 싶은 탱고는 어떤 걸까요?

아르헨티나 탱고를 재현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 예를 들면 어떤 전투 장면을 상상하면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탱고는 편곡이 정말로 중요해요. 기존의 유명한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음악가의 개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피아졸라 같은 경우도 자신이 만든 곡보다 기존의 곡들을 편곡하는 데서 더 자신의 개성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만큼 편곡이 중요한 거죠.

그 아르헨티나 탱고의 ‘맛’이라는 것은 할까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콘서트를 보면 바로 알아요. 제 공연 말고. (웃음) 그리고 보니 어느 인터뷰에서 “클래식 연주자가 녹음한 탱고를 듣고 연습한 사람들이라서 아르헨티나 탱고를 이해시키기 너무 힘이 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던데요.

그것도 ‘아르헨티나 탱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처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정식으로 음대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탱고를 배울 때 음반을 듣고 흥내 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요마나 기돈 크레머 같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탱고는 접하기 쉬워요. 아르헨티나 탱고 음반을 접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자들의 탱고는 좀 다르니까요.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전문 연주자의 일상은 어떤가요?

일과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늦은 나이에 악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안 돌아가요. (웃음) 연주도 많이 하고, 그중에서도 합주를 많이 해요. 제가 악보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때문에 악보도 만들고 편곡도 하고, 거의 그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쉬 때는 폭 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게 있다면요?

원래 목표를 딱히 정해놓고 살지 않아요. 눈앞의 불부터 끄기 바쁘다 보니. (웃음)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일 있을 합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없어요.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

음악이라는 공통어

음악은 소통이다.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와 리듬 안에서 누구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는 작곡가와 지휘자의 소통, 각 파트별 연주자의 소통, 지휘자와 연주자의 소통, 오케스트라와 청중의 소통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장(場)이다. 서울시향 부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Wayne Lin)은 바로 이러한 소통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인물이다. 부모의 나라 대만과 나고 자란 미국, 그리고 현재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음악'이란 공통의 언어가 있기에 그는 소통의 즐거움을 한껏 만끽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향은 암스테르담과 에든버러,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유럽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한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의 생생한 느낌이 궁금합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데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연 전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주장에 들어가 보니 많은 관객들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었고, 덕분에 따스한 호의를 느끼면서 연주할 수 있었죠.

국내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유서 깊은 어서홀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아닌 게기론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갖게 되었나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위스콘신의 그린 베이는 음악보다는 미식축구로 유명한 곳이에요. 작은 마을이지만 대부분 축구 선수들이고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공을 갖고 노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자극을 받을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 부모님 친구 중에 바이올린을 유독 좋아하는 외과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권유하여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처



음에는 전문 음악가를 꿈꾸기보다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였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거기 합격하면서 진로가 정해졌어요.

에든버러에서 공부하고 줄리어드 음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줄리어드 하면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을 배출한 학교로 유명한데요, 줄리어드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음악학교로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년 재능 있는 학생들이 그곳에 찾아들어오는 점입니다. 저도 제가 살던 작은 마을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줄리어드에 들어가서는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수많은 뛰어난 학생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안에서 경쟁이 엄청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극도 되고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멋진 연주를 할 때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절로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2008년 서울시향에 입단했는데, 시향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전에 악장을 맡았던 데니스 김이 예일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리사이클 중이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몇 년 뒤,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고 그렇게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줄리어드나 예일에 워낙 한국 친구들이 많

았기 때문에 와보지 않았어도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종 솔로리스트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공연을 했고, 축제가 끝난 뒤 오디션으로 합류하게 되었지요.

현재 서울시향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발전, 도약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의 힘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는 스스로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예술가이지요. 뉴욕에서 그의 지휘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는 서울시향에 엄청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시향의 오디션 제의를 받았을 때 저 역시 정명훈이란 이름에 가장 먼저 끌렸습니다. 그가 부임한 이후 시향이 상승 무드에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젊고 에너지 넘치던 제게도 좋은 기회일 거라 생각했지요.

수많은 작곡가 중에 특히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매번 바뀌지만 지금으로서는 말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시향이 말리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리의 교향곡은 규모가 대단히 큼니다. 그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압도적인 스케일, 각 파트의 연주자들이 쏟아내는 두터운 음향의 층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경험입니다. 마치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말리는 상당히 정서적인 음악인데, 차이코프스키나 베토벤과는 또 다른 의미의 정서입니다. 말리가 음악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정서를 사랑합니다.

현재 시향에서 부악장을 맡고 있는데, 전체 오케스트라에서 부악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악장은 악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연주에 갔을 때, 전체 오케스트라를 리드하고 음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객원 지휘자가 왔을 때 악장과 부악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서울시향은 고전 명곡뿐 아니라 현대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현대음악은 좀 난해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현대음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현대음악을 안다는 것은 음악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작곡가들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뒤에야 인정받습니다. 지금의 현대음악 역시 '미래의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현대음악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다른 높이로 가져갑니다.

관객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분들에겐 진은숙의 작품을 추천합

현대음악을 안다는 것은 음악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음악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다른 높이로 가져갑니다.



© 서울시립교향악단

니다. 현대음악의 맹점 중 하나는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음악이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진은숙은 음악적 구조가 명쾌하고 아이디어가 또렷하거든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누구입니까?

전설적인 세 명의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와 오이스트라흐, 밀스타인입니다. 아마 제 또래의 바이올리니스트는 대부분 이들의 음반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싫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셋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훌륭한 연주자들이지만, 또 각기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한국에서 음악을 하면서 행복한 점, 그리고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음악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축구에 목숨을 거는 내 고향과 달리 어릴 적부터 음악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고 열정이 대단해요. 가끔 어린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칠 때,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이 참 예뻐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미국이 너무 멀다는 것이예요. 한국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매우 많다 보니 때로 압박이 된다는 것도요.

현재 광화문에 살고 있는데, 이곳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서울시향 단원에게는 무엇보다 세종문화회관이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요. 공연장과 가깝다 보니 다른 단원들도 이 부근에 많이 살아서 그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라 어느 곳에 연주를 가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청와대와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도 이곳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서울이란 도시가 주는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내 고향은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고, 한동안 머물렀던 뉴욕은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는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작지 않은 도시지만, 이곳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융집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수많은 인종과 종교, 언어로 뒤섞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 그런지 어떤 단일성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향 활동 외에 또 다른 꿈이 있다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현악 4중주입니다. 각각의 연주자가 스스로 지휘하고 예술적 선택을 통해 대화하듯 음악을 만들어가는 실내악의 매력은 정말 특별합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고 그 자체로 놀라운 경험이지만, 가끔은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내악 연주는 예술적으로 제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한국에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그들과 바이올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글. 김주연 대학과 대학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5년간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문화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사진.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드 한 산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다.

예술창작과
—
향유로 행복해지는
—
즐거운 예술축제

2011
Seoul Art Space Festival
서울시
창작공간
페스티벌

www.
seoulartspace.
or.kr

2011. 9. 30금 - 10. 3월

선유도한강공원 및 서울시창작공간 9곳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문의 02.3290.7070

서울시창작공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NArt-창작공간 기획전시

시민들이 직접 예술작품과 재료를 할 수 있는

시민창작실-나는 예술가다

주말에서 하나뿐인 예술창작터 한마디에

아트마켓 도시화

문화도시 서울과 서울시창작공간을 한눈에

서울시창작공간 홍보관

서울시창작공간 공간예술가에게 특별공연

NArt-창작공간 기획공연

선유도한강공원 곳곳에서 만나는 거리예술가

서울거리아티스트

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카데미
연희문화창작촌
문희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아름다움창작홀이리
장미민창작스튜디오
율촌예술창작연어



도시는 변해도 추억은 남아

여행작가 손미나의 여의도에 대한 기억



KBS에 입사한 지 3년쯤 흘렀을 때의 일이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 명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그녀는 인기절정의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들을 중형무전하며 이름을 날리던 프로듀서였다. 정확히 말하면 화면에 간간히 얼굴을 비추며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세를 타는, '스타 PD'의 첫 주인공이었다. 당시 파격적이던 그녀의 행보는 직종에 상관없이 많은 방송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첫 사회생활에 최충우를 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신입사원들에게 참으로 다정한 선배이자 충실한 조언자였다. 그러니 그녀가 돌연 퇴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자 섭섭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회사 로비의 커피숍에서 우리만의 조촐한 송별의 시간을 마련했을 때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생활을 좀 다르게 했을 텐데... 일
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아니더라. 막상

여기를 떠나게 되니까 동료들 때문에 가슴이 찡하지 뭐니. 여의도에서 자고 먹고 일하며 보낸 시간이 인생의 삼분의 일 가까이 되는데 난 작전에서야 겨우 일박으로 시선을 돌렸어. 봄이면 이곳에 호드러지게 벚꽃이 피고 가을이면 은행잎이 거리를 뒤덮는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지 뭐야. 왜 그러도 여유가 없었을까? 내 삶의 터전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숨 쉬는 모습도 뒤로하고 어찌면 그렇게 일만 했는지. 이제 조금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천만 명이 넘게 사는 거대도시 서울, 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나'뿐이고 '큰' 물줄기 한강, 그 곁에 자리한 여의도는 사실 많은 이들에게 정겨운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국회의사당과 증권거래소, 주요 방송사,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부 건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최고 높이라는 자부심에 반짝반짝 빛나던 63빌딩이 있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중심지. 주중이면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금융가 사람들과 근사한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들, 나이에 상관없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방송사 직원들과 심심치 않게 섞여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곳. 하지만 주말이 되면 모든 기능이 멈춘 채 잠들어 버리는 외딴 섬.

내게도 여의도의 첫인상은 그다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다. 아나운서 시



힘을 치르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러 갔던 날이었다. 강 위에 떠 있는 섬이 커졌자 얼마나 크겠어?라고 알잡아본 바람에 아무 데서나 대강 버스에서 내렸다가 곤혹스런 한때를 보내야 했다. 여의도는 결코 만만한 크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방이 다 비슷비슷한 건물들에 둘러싸여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기에 재빨리 나의 위치를 찾아 볼 방법도 없었다. 곧 다다를 수 있겠지 생각하며 걷는 사이 버스 정류장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고 택시도 마음대로 잡히지 않았다. 서울 토박이라는 사실 하나로 여유만만 길을 나섰다가 아주 보기 좋게 큰코다친 셈이었다. 유난히 뜨거웠던 그해 여름, 낮선 길에 들어서 한참을 헤매는 동안 나는 시시각각 지쳐 갔고 온몸은 땀에 젖어들었다. 길을 좀 물어볼라치면 뭐가 그리 바쁜지 앞만 보고 걷는 사람들은 아직 학생 티가 풀풀 나는

젊은 여자에게 큰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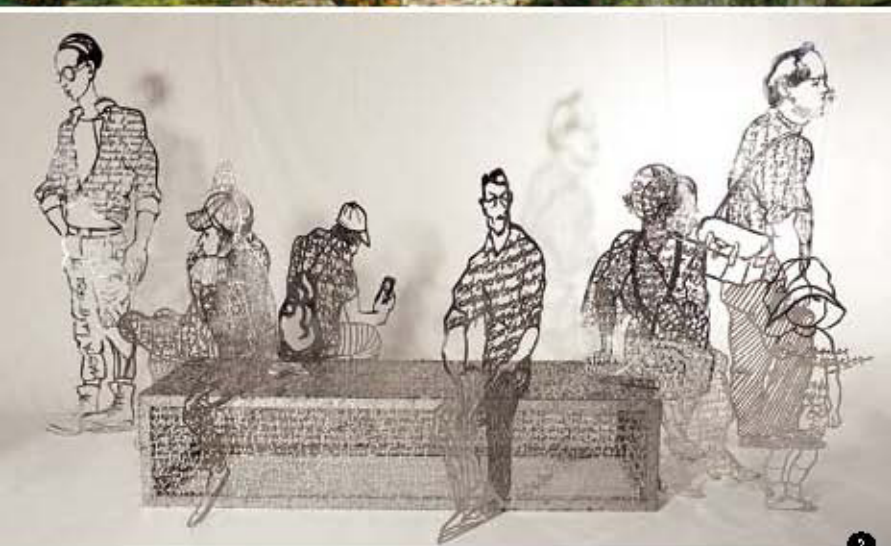
결국 나는 참으로 어렵게 여의도를 가로질러 훗날 나의 직장이 된 KBS를 찾아냈다. 사실은 뒤늦게 받은 토익점수 때문에 원서접수 마지막 날 마감시간이 다 되어 여의도에 도착했던 터였다. 다시없을 기회를 놓칠세라(당시에는 방송사 입사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었고 그해는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해였다.) 발을 동동 구르던 그날의 기억.

변한 그곳이 낯설지 않은 이유

빌딩숲 속에서 길을 잃고 힘들어하던 여의도는 결국 지금까지의 내 인생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청춘의 꿈을 원 없이 꽃피운, 결코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다. 아침 방송을 하러 가며 보았던 새벽안개 자욱한 회색빛 거리, 커다란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내려앉은 야경을 바라보며 라디오 방송을 하던 밤, 선후배 동료들과 장을 쌓으며 밥을 먹던 단골 식당, 힘겨운 녹화가 끝난 후 스테프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던 포장마차, 주체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올 때면 슬며시 차를 몰고 나가 달콤한 낮잠이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나만의 비밀 장소, 여름밤 불꽃축제 기간 엄청난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바람에 생방송에 늦을세라 차를 버려두고 순찰 오토바이 뒤에 앉아 출근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윤중로의 뱃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봄과 발목까지 은행나무잎에 잠길 정도로 햇노란빛의 홍수를 이루던 가을.

세상 어디를 가 보아도 서울처럼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흐르는 도시는 보기 드물다. 그중에서도 여의도는 서울의 모습을 두 배 정도 빠른 속도로 돌려놓은 듯한 삶의 리듬이 이어지는 곳이다. 특히 내가 일했던 KBS 주변의 모습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한때 청춘들의 물리스케이팅장으로 각광받았던 여의도광장은 산책로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으리으리한 호텔과 주상복합 건물이 사방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이따금 그곳을 찾을 때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그 안에서 시간조차 잊은 채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내 정든 옛 직장 동료들을 포함한 여의도의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숨 가쁜 하루하루, 미래를 향한 열정과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여의도만의 바람을 느껴본 이는 다 알 것이다. 인간미나 따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섬에는 봄이면 피고 지는 뱃꽃이나 가을이면 향기를 머금은 은행나무만큼이나 수많은 이들의 꿈과 야망과 사랑과 슬픔이 매시간 새롭게 피어나고 잠들고 있음을.

신입사원 시절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보냈던 선배, 그녀가 일한 시간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 나 역시 여의도를 떠나 세상 밖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그날 선배의 마지막 고백이 가슴에 남아 최대한 삶의 템포를 조절하려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그걸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눈코 뜰 새 없이 일에 매달려 보낸 10년이 지나고 정든 그곳을 떠날 순간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선배가 한 말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고 주체할 수 없는 허전함과 서운함이 온몸으로 밀려들었다. 이제, 지구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일을 하다 가끔 서울을 찾을 때 추억의 장소로 떠올리게 되는 여의도, 한강 위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섬은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겉모습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내게는 영원히 열정과 꿈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한글이 제일 잘 나가

왜 한글은 아트가 되었나



우리는 날마다 한글을 보고 산다. 까만 붓글씨로 토박토박 쓰인 통의동의 '대오서점'이라는 낡은 간판, '이 해 박는 집'이라고 적힌 가회동의 오래된 치과 간판, 시장 골목길에 김밥집이라고 속속 형광펜으로 그은 한글 하나하나에는 자기만의 얼굴과 느낌이 배어 있다. 밥상에 놓인 하얀 쌀밥의 매력을 굳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보고 읽고 소리 내어 말하는 한글의 매력은 너무도 가까이 있어서 새삼스럽게 돌춰내지 않으면 느끼기 힘든 그 무엇이다.

때로 당백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한글도 빛이 나는 어떤 계절이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는 것은 주변 곳곳한 곳까지 속속들이 침투한 한글의 힘을 모처럼 발굴해내기 위해서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한글의 숨결을 다시 한 번 느껴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생활 곳곳에서 군데군데 매일이 한글날인 것처럼 빛나는 한글의 세계가 있다. 지금 한글은 말과 글을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맛과 멋을 지닌 예술이 되고 있다. 동시에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떠오르고 있다. 가까이 있어서 보기 힘들었던 한글의 특별함이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 없는 무대를 만나 제 끼를 발산하며 특별해진다.

지난 9월 4일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의 '세종이야기 한글갤러리'에서는 한글의 매력을 작품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는 작가 강익중의 한글 설치 미술전이 열려 화제를 모았다. 전시장 벽에 설치된 한글 작품은 무려 가로 28m, 세로 1.2m의 대형작품으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당시 한국관에 설치되었던 <내가 아는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강익중의 <내가 아는 것>은 형형색색의 한글이 콜라주된 작업으로, 친근한 한글이 만들어낸 낯선 세계의 향연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작가가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을 복합적으로 섞어 배치한 이 벽면을 돌아다보면 알쏭달쏭하게 배치된 한글 글자마다의 조형성과 매력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밤 잤다 노을이 예뻐했을 다음 날 날이 좋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이어 읽으면 뜻밖의 내용이 끊어지는 문장들이 벽 위에 비밀스러운 그림처럼 펼쳐진다.

한글을 '그린다'고 이야기해온 작가 강익중의 한글 작품은 한글이 가진 형태 특유의 미감이 드러난다. 강익중은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작가는 전시기간 동안 관객들과 함께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글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름 하여 <희망의 벽> 프로젝트는 작은 종이에 자신의 꿈을 한글로 그려 한글갤러리에 설치하는 공동작품이었다. 각각 다른 글자체로 쓰인 '자유, 꿈, 대통령, 설레임'이라는 글자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의 투박함이 꿈을 표현하고 빛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예술의 힘을 음미하게 했다.

이거 한글 맞아?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가나 디자이너의 한글 작업에도 맛이 넘치지만 생활에서 만나는 한글 디자인에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 풍긴다. 글자의 기능은 '느낌'이라는 경제한 차원을 만나 평범하고 낮은 사물의 형태와 쓰임에 신선한 생기를 선사한다. 한글 형상으로 만들어진 엄옥상의 작품 <전시장 사람들>처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낮은 한글을 신선하게 바라보는 시각의 힘으로 한글은 생활 곳곳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매체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캘리그래피(calligraphy, 붓글씨)'의 묘미를 대중에게 알린 캘리그래퍼 강병인은 술병 디자인에 쓰인 손글씨 '참이슬' '산사춘'부터 시작해 인기 드라마와 영화 포스터의 글자를 하나의 예술적 아이콘으로 끌어올렸다. 컵, 달력 등 생활 소품에 한글을 새겨 넣을 뿐 아니라 의상 디자이너 이도이를 비롯한 여러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진행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강병인은 전시회를 통해 생활디자인과 예술 두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한글 글꼴 창작의 세계를 선보인다.

한글이 옷과 인테리어 소품, 건물 위에 올라앉아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새로운 에너지를 구사하는 모습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의 활약을 비롯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화 현상이다. 유명 디자이너뿐 아니라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도 명함 케이스, 그릇, 장식용 소품 등의 사물과 그래픽 디자인에 한글을 재치 있게 활용한다.

글자체 개발회사인 산돌티움은 우리말 티셔츠, 기운, 부채, 시계 등 디자인이 필요한 곳곳에 아기자기한 한글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 소품을 제작하고 판매한다. 그런가 하면 인사동의 갤러리 토포하우스에서는 올해 초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전작 작가 정병래, 도예가 전병근, 핸드백 등 패션 디자이너 이진만이 작家的 명작을 모아 <한글 디자인 명인전>이라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일상 소품과 명품에 사용된 한글을 비교해 보는 것도 큰 재미다.

<한글 디자인 명인전>에 참여했던 디자이너 이진만이 만드는 각종 생활 용품도 한글의 구석구석에 갖든 조형미를 심분 재활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글을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라고 표현하는 이진만 디자이너의 작업은 디자인 작품인 동시에 인

- 1 서체디자인회사 산돌티움에서 기획 제작하여 판매하는 한글 디자인 상품. © 산돌티움
- 2 한글로 사람 형상을 만든 엄옥상 작가의 <전시장 사람들>.
- 3 한글 병뚜껑. © 페니퍼워
- 4 강병인 작가의 한글 벽화 작업 (4가 아는 것).





가상품이다. 한글과 전통 문양의 다종 다기한 배치를 통해 ‘이제 한글 맞아?’ 하는 신선한 표현을 더하여 한글 디자인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데 주력한다.

이전만 디자인의 벡타이나 스카프에 깃든 동그라미 무늬는 한글 자음 ‘ㅇ’과 ‘ㅎ’을 떠올리게 하고 둥근 달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단어와 문장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보일 듯 말 듯한 한글을 발견하는 기쁨이 디자인에 녹아들어 있다. 여러 재질의 가방은 물론이고, 한글의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요소요소의 배치와 활용으로 다양한 형태와 실용적인 감각을 더하는 패션 소품을 디자인한다.

낮익은 한글을 낯설게 바라보기

한글의 존재 방식에 관심이 많은 디자인 전문가들은 ‘가나다라’ 같은 문자를 접이나 옷 위에 딱 하니 새겨 넣는 것만이 한글이 갖는 매력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물론 한글의 높은 수준을 알리고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 본연의 매력에 대한 심사숙고도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글을 보고 다루고, 한글에 관해 대화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에 다양한 ‘태도’와 ‘시각’이 담겨 있으며, 여기에서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또 한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경험이 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이너 안상수의 작품 〈알파에서 하우까지〉는 한글이 과연 어디까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나할 것인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안상수의 디자이너로 널리 알려진 안상수 디자이너를 비롯해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반 표지 등을 디자인하는 젊은 디자이너 김기조, 한글 디자이너 한재준, 이용재에 이르기까지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한글 디자인을 보는 시각은 더욱 진지할 수밖에 없다. 한글의 서체와 글꼴, 그리고 칼리그래피에 이르기까지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한글이 예술인 동시에 지적 생산물이고, 상상력인 동시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기를 의도한다.

한글의 품과 움직임만으로 젊은 디자이너 김기조가 표현해내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세계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고풍스럽고, 70~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듯하면서도 가장 2011년에 가까운 현재적 느낌을 보여준다.

한글 디자이너 이용재는 몇 해 전 "글자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공적인 두 가지의 이중적인 얼굴을 가졌다. 한글 관련 서체를 만들고 돌보는 일은 가치 있는 문화 예술행위임은 물론 세심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공공재 영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용재 디자이너는 한글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며 세로쓰기 전용 서체 '꽃길' 등을 개발했고, 여러 디자이너와 함께 다양한 한글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참여해왔다.

이제 한글은 즐거운 문화이자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미지의 보물섬이다. 전통이라는 일견 오래되어 보이는 공간에 투박하게 비무는 파분하고 맛있는 대상이 아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생산자들이 한글을 과거의 틀에서 깨어 새로운 감각의 길로 인도한다. 최근에는 한글을 만나 놀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한글을 고향으로 한 이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모국어를 더 잘 알고 깊이 새기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시들이 앞다뒀 호기심 충만한 관객들을 기다린다.

강익중 작가의 전시회를 열었던 세종문화회관의 한글갤러리에서는 10월 23일까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의 아름다움을 몸소 글로 실천한 가시문화의 대가 송강 정철의 작품과 자료를 전시한다.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감탄을 자아내는 문학 경험과 함께 한글 모양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디자인의 의자를 관찰하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도 한글날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10월 8일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펼쳐질 역사탐방 <세종의 선물>은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실제 연극배우들이 실감나는 대본으로 풀어낸다. 여론의 반대와 여러 갈등을 이겨내고 창제된 한글의 탄생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 체험이 될 것이다.



1~5 서체디자인회사 산토리움에서 기획 제작하여 판매하는 한글 디자인 상품들. ⑥ 산토리움 디자이너 안상수의 <인파에서 허물까지>.
2 강익중 작가와 관객이 함께 만든 한글 작품 <해방의 벽>.
3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타이포 존트> 전시 중 한재준 작가의 작품.
4 이철수의 집 그림시계 ⑤ 페니피쉬



역사 콘텐츠가 무대를 장악한 이유

퓨전사극과 뮤지컬, 그 묘한 상관관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가장 훌륭한 콘텐츠다. 고전 연극과 같은 무대예술에서부터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인물과 스토리텔링은 대중을 빠져들게 하는 최고의 소재다. 우리나라 역시 소위 '사극'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퓨전드라마가 10여 년 동안 안방극장에서 각광받아 왔다. 퓨전의 어원은 '섞다'라는 뜻의 라틴어 'fuse'에서 비롯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말로 융합, 융해, 연합, 합병, 제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문화가 만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신선하고 혁신적인 결과가 탄생하는 과정을 '퓨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마찬가지로 연극, 뮤지컬에서도 퓨전사극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정통사극 VS 퓨전사극

퓨전사극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극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서 제재(題材)를 빌려 온 희곡, 또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TV는 퓨전사극이 가장 활발하지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역사적 고증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통사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유행처럼 등장해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진 퓨전사극은 모든 면에서 새롭다. <허준> <다모> <대장금> <주몽>에서부터 최근의 <추노> <공주의 남자> <무사 백동수>에 이르기까지 소재는 정통사극을 표방하지만 그 표현방식은 현대성이 두드러진다. 등장인물들의 말투, 배경음악, 시각적 요소들은 정확한 역사적 고증에 기초하기보다는 자유분방하게 해석하고 허구적인 판타지 요소 개입에 관대하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새롭게 창조된 인물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스타일을 부각시킨 현대적인 표현이 세련미와 코믹성을 추구한다. 기존의 정통사극이 궁중에서의 권력 암투 등을 다룬 데 비해 이른



1·3 '검객과단'이라는 부제가 붙은 연극 <도화만발>은 천 년을 관통하는 판타지 사극으로 주목받았다.
2 '태몽선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연극 <꿈속의 꿈>.

바 퓨전사극은 민중의 역사, 풍속의 역사 등 보통 사람들의 삶과 가까웠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를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퓨전드라마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다모>의 배경이 된 포도청도 그동안 정통사극에서는 배경에 머물렀던 장소였으며 주제 역시 혁명의 성패가 아니라 채옥과 황보윤과 장성백의 사랑이었다. 이는 세대에 따른 신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퓨전사극은 뒷마루 한구석에 오랫동안 박혀 있던 낡은 이야기일지라도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젊은 창작자들의 욕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정통사극을 즐기던 중장년층을 포함해 화려한 볼거리와 영상, 익숙한 배경음악에 반응하는 젊은층까지 범위를 넓혀 열광적인 지지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퓨전사극이 공공연하게 역사왜곡의 논란에 시달려 온 것도 사실이다. 마치 서양고전을 해피엔딩의 잣대로 재해석해 비판받은 일련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사극이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퓨전사극의 가장 큰 미덕은 작품 바깥의 역사로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는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미 대중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문화코드를 활용해 과거의 역사를 불러낸다는 것이다. 즉 퓨전사극은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상력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현실을 과거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역사를 상상해 내는 것이다. 대중의 현재적 감성을 읽어 내, 새로운 역사적 시공간을 창출해 내는 상상력이 퓨전사극의 핵심이다.

뮤지컬은 애초부터 '퓨전'

퓨전사극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단어다. 드라마 <허준>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여 <다모> 이후 대부분의 사극은 비록 퓨전사극을 직접 표방하지 않아도 음악이나 연출에서 현대적인 기쁨을 도입하고 있다. 그 절정은 <추노>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만담 같은 야사를 기반으로 한 <공주의 남자>가 퓨전사극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퓨전사극이, 대중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TV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무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국유사>의 '태몽선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연극 <꿈속의 꿈>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상연된 <도화만발>도 연극으로는 드물게 큰 규모의 라이브 국악밴드가 등장한, 천 년을 관통하는 판타지 사극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무대 위 배우들의 웅장력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결코 느낄 수 없는 강한 에너지였다. 그렇다면 다양한 무대요소에 드라마를 이끄는 음악까지 덧붙여진 뮤지컬에서 퓨전은 어떤 의미일까? 아니 잠깐, 뮤지컬은 애초 퓨전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피터 쉐퍼의 연극 <아마데우스>를 스크린으로 옮긴 동명의 영화를 보면 뮤지컬과 춤에 관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인 모차르트가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발레를 넣고 싶어 안달하는 장면이다. 이미 오페라에는 춤이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영화의 상황과 실제 역사 속의 상황은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장르 간의 교류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그 목적은 언제나 '볼거리'였다. 더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춤과 연극, 노래는 늘 서로 교류해 왔고 그 교류의 정점에는 가장 상업적인 무대 장르인 뮤지컬이 자리 잡고 있다.

뮤지컬이 아직 '뮤지컬'로 불리기 전인 1800년대 말, <검은 옷의 괴도>라는 버라이어티쇼가 뮤지컬의 시초로서 뉴욕에서 공연되었을 때, 그 형태는 공격적으로 발레를 차용한 모습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발레복을 통해 여성의 다리를 드러낼 수

퓨전사극은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상력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현실을 과거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역사를 상상해 내는 것이다. 대중의 현재적 감성을 절묘하게 읽어 내, 새로운 역사적 시공간을 창출해 내는 상상력이 퓨전사극의 핵심이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쇼가 수준 낮은 다리만 번쩍번쩍 들어 올린 것은 아니었다. 40인조에 가까운 풀 오케스트라는 물론 수준급의 대본작가와 연출가, 당대의 최신파 무대기술을 이용하여 댄서들이 하늘을 날고 천장에서 새가 내려오는 화려한 쇼를 만들어냈다. 이후 뮤지컬은 레퍼와 벨레스크로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드라마와 음악, 춤이 서로를 보완하며 현재의 형태를 띠게 된다. 바로 그 시초는 상업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재도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밝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은 아마도 앤드류 로이드 웹버의 <오페라의 유령>일 것이다. 파리 오페라극장을 배경으로 한 이 에픽 뮤지컬은 사실 어둡고 잔혹한 이야기다. 주인공인 유령은 무대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다. 그럼에도 관객들은 이 황홀하게 생긴 살인마에게 공감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린다. 크리스틴 역을 했던 수많은 배우들이 잘 생긴 남자 주인공 라울보다 유령을 택하겠다는 인터뷰를 서슴없이 해낸다. 만약 이게 연극이나 영화라면 아무리 유령이 주인공이라 해도 유

령을 선택하겠다는 말이 그리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은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가 <Music of the Night>를 한 번 불러 버리면 그 아름다운 선율과 노래에 담긴 비장함, 애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노래가 불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기괴하다. 그가 크리스틴을 납치해 와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노래는 이렇듯 스토커이자 살인자이며 정신이상자인 한 남자를 한 순간에 순정 가득한 사나이로 만들어 버린다. 아마 현실에서 이처럼 누군가가 사랑을 노래로 부르고, 살인자가 납치한 여자를 돌려다보며 노래한다면 소름이 끼치겠지만 뮤지컬이라는 장르 안에서 모든 관객은 그의 내면 속으로 흥행 빠져든다.

뮤지컬은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판타지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일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영화와 연극에서 무사가 칼로 적을 겨누고 노래를 부르겠는가. 뮤지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뮤지컬은 애초부터 앞으로도 일관되게 퓨전이며 판타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객들은 꿈나라 이야기며, 노래로 판타지를 보여주는 뮤지컬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가혹한 현실을 더욱 가혹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힘을 얻었고 뮤지컬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멀쩡해진 구시대적 장르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가장 대중적인 장르였던 뮤지컬이 사람들로부터 구태의연한 장르로 인식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뮤지컬은 그렇게 대중성을 상실하고 근근이



2

- 1·4 경희궁 송정전 무대에 오른 고궁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세트와 의상, 음악과 연출이 제대로
조화를 이룬 퓨전시극으로 각광받은 작품이다.
- 2 드라마 《공주의 남자》.
- 3 드라마 《무사 백동수》.



3



4

이어온 셈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시간이 지나자 뮤지컬은 다시금 '핫'한 장르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뮤지컬은 죽었다는 사망선고가 수십 번 내려졌지만 뮤지컬은 죽지 않았다. 그게 바로 뮤지컬의 대중성 때문이거니와 뮤지컬의 '노래'가 어느새 '낯설게 하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가수 비옥이 주연했던 <어둠 속의 댄서>였다. 가장 현대적인 비극에서 주인공이 자신에게 처한 비극을 면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바로 머릿속의 뮤지컬 쓰기였다.

역사극과 뮤지컬의 행복한 만남

결론적으로 사극과 뮤지컬이 만나면 '퓨전'이라는 단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뮤지컬은 장르 자체가 이미 퓨전이며 고농축의 하이브리드 장르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 어떤 연극, 영화, 드라마도 주인공들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다. 주인공들이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춤까지 추며 칼을 들고 발라드를 부르는 장르, 그게 바로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무대에 오른 '사극+뮤지컬'은 그 결합도가 한층 더 단단해

졌다. 최근 성황리에 공연되었던 고궁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경희궁 송정전을 배경으로 한 단아한 세트와 의상 디자인, 고도로 계산된 세련된 움직임과 결합시킨 연출 기법, 그리고 동서양의 악기가 빚어내는 음악이 아우러져 이미 모든 것이 '퓨전'이라는 단어를 의식할 것도 없이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역사극과 뮤지컬, 혹은 역사극과 연극의 행복한 결합물들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설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은 고전드라마의 키타란 이야기에 여전히 감동받으면서도 판타지적인 표현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이다. 퓨전사극의 득세는 매체를 박멸하고 대중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애초부터 퓨전이었던 뮤지컬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서양에서 비롯된 뮤지컬이 음악과 드라마의 이중교배와 하이브리드의 변종을 통해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 것 같다.



세만립잡지

불업! 독립잡지의 무한 매력

몇 해 전부터 '독립잡지'라 불리는 일련의 출판물들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혼자 또는 두세 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제작하고, 홍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이 출판물은 온라인을 통해 전국은 물론 해외로도 유통된다. '작지만 단단한' 이 출판물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지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입증함은 물론 대중에게 잡지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잡지는 '수익과 내용 면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잡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기존 잡지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한 내용으로 잡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잡지의 제작방식이 몇 해 전부터서야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한국 최초의 잡지로 꼽히는 <소년> 역시 독립잡지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최남선은 1908년 친구들과 함께 고국의 현실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퇴학을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는 <하에게서 소년에게>를 비롯해 90쪽에 달하는 글을 모두 혼자 쓰고, 귀국길에 사온 인쇄기를 사용해 <소년>을 창간한다. 앞서 언급한 방식들이 독립잡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최남선의 <소년>은 한국 최초의 개인잡지이자 독립잡지라 부를 만하다.

대량의 시대를 넘어 다양한 시대로

형식적인 면에서 100여 년 전의 잡지와 최근의 독립잡지들이 동일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의 잡지들이 주로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독립잡지들은 특정 분야의 정보나 취미는 물론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른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잡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쇄업계에서 격언처럼 전해지는 우스갯소리로 "원수가 있다면 그에게 잡지를 내도록 부추기라"는 말이 있다. '잡지를 발간하면 결국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드시 망하기 때문'이라한다. 이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소비되어야 하는 잡지의 속성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인쇄매체의 속성이기도 한데, 원고를 작성해 책으로 발간하고 이를 유통하는 일련의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지를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며,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던 잡지 시장이 경제 회복과 더불어 활력을 되찾으면서 다시금 무수히 많은 잡지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사라져갔다.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해 문화잡지를 위시하여 다양하게 분화된 주제의 잡지와 인터넷 웹진이 등장하면서 잡지가 다루는 주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그에 따라 독자들의 취향과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 것

하지만 대량으로 발간되는 기존의 잡지는 가급적 많은 수의 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내용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독자들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립잡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독립잡지가 실제로 출판될 수 있게 된 데에는 개인이 직접 출판물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소량의 출판물도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보급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명 또는 두세 명으로 구성된 작은 집단이 제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한 출판물을 직접 제작하고 지출 가능한 비용을 들여 소량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잡지들은 독립잡지의 초기세대로 불리는 <싱클레어>(개인작업자들의 기고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문화잡지), <보일라>(부산을 기반으로 아티스트들과 그 작업을 소개하는 잡지) 같은 잡지와 유사성 및 차이성을 동시에 지니며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제작자의 의도를 잡지에 온전히 반영한다는 것이 유사성이라고 한다면, 보다 특화된 주제를 다룬다거나 발간 부수를 소량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차이랄 할 수 있다.

숲이 커지면 그만큼 좋은 나무가 많아지듯 이 잡지들은 제작과 유통에서 독특한 시도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잡지,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하는 잡지, 해외시장을 적극 모색하는 잡지를 꼽을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잡지는 <안녕, 평안리>와 <스트리트 h>가 대표적이다. 이 두 잡지는 각각 부산과 홍대 지역을 주제로 제작된다.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이 잡지들은 단순히 지역을 소재로 하는 지역 매체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바닷가와 문화적 기반이 풍부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기획을 통해 풍부한 내용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하예 이룬바 '동네잡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동네에 사는 이들에게는 동네의 소식을 전하고 동네에 찾아온 낯선 이들에게는 동네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하는 <헤드에이크>는 독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형식의 잡지다. 독자들에게 제시할 대표적인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모색해서 잡지를 제작하는데, 질문은 간결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질문에 대한 폭넓은 대답을 수





〈싱글라이프〉, © 최성열



〈헤드에이크〉, © 최성열



록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와 계층의 독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미술가 YF가 발간하는 〈SSZ Zine〉은 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의 작품을 개인전 형태로 수록하는 잡지다. 책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발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유통하지 못하는 한계를 온라인을 통해 보완하고, 나아가 해외의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을 소개하겠다는 잡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해외 시장을 적극 모색하는 잡지로는 〈그래픽〉을 꼽을 수 있다. 디자인에 관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매우 심층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아울러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해외 독자들에게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여주는 이 잡지는 독립잡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한다. 패션을 주제로 한 〈나진〉은 시각적으로 뚜렷한 특성을 지닌 잡지답게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덜 겪는 것을 발판 삼아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제작진들이 온라인을 통해 작업하는 새로운 제작방식을 시도 중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maps〉 〈가짜잡지〉 같은 잡지들을 주목할 만하다. 〈maps〉는 기존의 잡지들과 동일한 문법과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지만 하위문화의 범주에서 스트리트 패션을 다루는 주제의식이 매우 독특한 잡지다. 기존의 패션잡지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루며, 이러한 맥락에서 광고에 있어서도 제작자들이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브랜드의 광고를 유치하려 노력한다. 〈가짜잡지〉는 두 명의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제작될 때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대단히 강조된 잡지이며, 특정한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이 주로 수록되는 대부분의 잡지와 달리 주제가 다양하다. 하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신호나 의도로 짐작되는 장치들을 발견하고 이를 곱씹게 된다는 것이 이 잡지의 매력이다.

독립잡지가 활성화된 데에는 다양한 잡지가 등장한 것 외에도 독립잡지의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큰 뒷받침이 되었다. 독립잡지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취급하는 서점들이 등장하였는데, 홍대 지역에 위치한 '유어마인드', 경복궁 역 인근에 위치한 '가까리', 삼청동에 위치한 '더 북스', 대학로에 위치한 '이음 책방', 상수역 인근에 위치한 '북 소사이어티'가 서울의 대표적인 서점이다. 부산에 위치한 '살메이커즈'와 '프롬 북스'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특히 '유어마인드' '북 소사이어티' '살메이커즈'는 독립잡지를 유통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출판물을 발간하고 독립잡지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독립잡지에 대한 대중들의 다양한 관심과 호기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독립잡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잡지를 제작하는 것을 '특별한 경험으로 몇 차례 해보는 것이 아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독립은 '자치'임을 기억하라

출판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개인의 편집 능력이 증대되고, 소량인쇄가 가능하게 된 디지털 프린트 기술의 보급을 통해 독립잡지의 활발한 등장이 가능해진 이후, 독립잡지는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비단 독립잡지뿐만 아니라 종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출판방식에 근본적인



홍대 근처에 위치한 '유어마인드'에서는 다양한 독립잡지를 만날 수 있다. © 백종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전자책은 특히 독립잡지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독립잡지가 갖고 있는 잡지라는 근본적인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과 유통 면에서 기존에 독립잡지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독립잡지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기존의 잡지들과 차이를 지니는 만큼 독특한 장르로 분류되어 왔으며, '독립'이라는 수식어가 갖는 모호함으로 인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기도 했다. 때문에 독립잡지를 제작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찾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소규모 출판물'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 역시 '잡지'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정기간행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하는데, 새로운 형식의 전자책이 역설적으로 기존의 잡지와 독립잡지가 종이라는 물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다.

전자책이 독립잡지에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이 물성에서 출발한다. 자본 규모의 한계를 갖는 독립잡지는 인쇄와 유통 면에서 비용 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종이를 구입하고 인쇄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에서도 보관과 배송에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전자책은 인쇄와 유통 면에서 종이책에 비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독립잡지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책이 주는 효용은 비단 독립잡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만큼 전자책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종이책과 전자책이 갖는 근본적인 물성의 차이 역시 간단히 넘어설 수 없는 관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청되는 것은 '독립'이라는 용어로 복귀하는 것이다. 즉, 독립이 '자치(self-rule)'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치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개인적인 결심과 행동을 의미한다. 제작환경에 관계없이 잡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던 제작자들의 처음 결심과 행동을 기억한다면, 변화하는 환경을 좋은 기회로 발판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독립잡지뿐 아니라 기존 잡지에도 해당하는 방법일 것이다.

글. 피터 <상문래> 편집장. 정치학과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대학을 두 번 졸업했다. 오래된 책 읽기를 좋아하며 고전악기에 관한 글을 쓴다. 밴드 <기타쿠스>에서 음악을 만들고 기타를 치면서 2009년 봄부터 도시형 음악축제 <신촌콘서트>를 계간지 만들 듯 제작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ebsband>, <http://www.facebook.com/guitarous>



<가짜잡지>, © 최성연



<그래픽>, © 최성연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기워트)를 들은 수강생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04 사람과 네트워크가 길이다

지난 7월부터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획기사를 결국 '사람과 네트워크'라는 평범한 화두로 끝을 맺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이든지 영리기업이든지 기업활동의 시작은 결국 진취적인 기업가에게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생산 단계에서의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마케팅 단계의 유통망 확충차원에서도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요소가 된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사람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보면서 연재를 마친다.

결국, 사람에게서 답을 찾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를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전망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란 기업이 정신을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출발된다. 그러나 그 가그 문제에 처음 직면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난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다. 그리고 단지 문제의 제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활동과 연결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가는 뜻을 세울 때는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결국 기업과 조직, 그리고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단 몇 사람만으로도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는 1980년에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시작한 아쇼카재단(Ashoka Foundation)이 있다. 아쇼카재단은 매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아쇼카 펠로우를 선발하고 있다. 아쇼카 펠로우(Fellow)로 선발되면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3년간 자금과 경영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된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쇼카재단의 빌 드레이튼 대표는 '제인지 메이커(Change Maker)'를 강조하면서 사회적기업가가 주위 사람들을 전염시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 등



1기 워크숍 클래스 발표과제에 대한 크리틱 장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 19개 기관에서 320팀의 창업팀들이 사회적기업가에 도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업팀들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초기 사업 개발비와 공간, 그리고 멘토를 지원해준다. 내년까지 그 지원 대상자가 약 3,000여 명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사회적기업의 관심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 안에 길이 있다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잣대 속의 폭풍으로 멈춰버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변화를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기업활동을 위한 별다른 자원이 없는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은 더욱 중요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는 이미 상호 부조를 통한 창작활동에 익숙하다. 이러한 상생형 생태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상호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노하우의 교환이 특히 필요하다. 판로 개척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은 대중을 상대하는 고비용의 매체광고보다는 신뢰에 기반한 고효율 마케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도 네트워크 구축과 그 안에서 융통될 수 있는 신뢰와 평판 관리의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의 가장 큰 효율은 아이디어 융합을 통한 생산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다. 요즘 같은 융합의 시대에서 장르 예술의 한계를 넘어선 창작을 위해서도 융합은 이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융합은 필수적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수행모델의 혁신에도 융합이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기존 사업과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쉽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아이টে임을 들고 나오지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현장 사회적기업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2011년 5월부터 격월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 포럼은 사회적기업가들이 느끼는 현장의 이슈들을 토론하고 문제해결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는 기업 간 거래의 기반이 되기

도 한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정보와 자원 공유의 장이면서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 과정이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 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의 최고경영자과정처럼 인맥 쌓기식의 네트워크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는 한발 더 나아가서 교육 주최 공공기관에서 가용한 자원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협업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협업을 통해 문화기업 창업계획 정제하기 -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이하 창업팩토리)는 문화기업 창업과정에 대한 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효과를 기대하며 워크숍 클래스와 멘토링 클래스로 구성되었다. 워크숍 클래스에서는 창업 아이템 도출부터 다양한 외부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실행할 비즈니스 모델 정립까지 필요한 기초 이론을 김종휘(씨즈 청년사업단장), 이선철(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정지훈(관동의대 IT융합연구소장), 박성연(크리베이트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번 창업팩토리 워크숍 클래스는 말 그대로 수강생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워크숍이 핵심이었다. 수강생들은 전문가 강의와 워크숍 퍼실리테이터, 창업아이템 발굴부터 정제까지 필요한 방법론을 듣고 이를 팀 활동에 직접 대입시켜 학습할 수 있었다. 수강 신청 시 밝힌 각자 창업아이템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할 창업팀을 구성하여, 워크숍을 통해 이를 정제하여 수료과제로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 사업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창업팩토리 1기에는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고려하여 40명 수강생들이 선정되었다. 이미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한 경우도 있었고,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예비취업자도 있었다. 문화기획자, 소셜네트워크 기획자부터 예술교육 전문가와 장애인작가도 있었다.

이들이 평소 생각하던 창업 또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몇 번의 해체 모이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료과제로 발표한 사업아이템 또한 다양하고 흥미롭다.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과 장애인 창작 전문지원기관 기획자가 만나 장애인 작가들의 자립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이 새롭게 도출되기도 하였고, 소아암 환자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 17기 워크숍 클래스 수료생 간담회

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구상중이던 기획자는 예술교육 전문극단 대표자를 만나서 그 꿈을 실행하기 직전까지 도달하였다. 또 문래예술창작촌을 알리는데 공을 들여온 기획자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교육받은 전문 TA(Teaching Artist)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신당창작 아케이드 입주 작가들의 아트상품을 유통하는 아트자판기, 사회적기업 작업장의 보육시설을 확장한 마을형 키즈카페(kids cafe), 소셜 파티를 가미한 신진작가 육성 발굴 전시회 등 새로운 개념들도 수강생들간의 아이디어 융합을 통해 제시되었다.

‘너무 친절한’ 공공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

창업팩토리 1기 수료식에서는 이렇게 발굴, 융합, 정제된 총 19건의 창업팀 아이디어 중 예심을 통과한 10개 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 단계인 멘토링 클래스에서는 각 사업유형에 적합한 전문 멘토와 함께 창업팀들이 추가 자료조사를 통해 실제 창업 또는 사업 실행을 준비하고, 그 성과를 한 달 뒤에 발표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멘토링 클래스 과정 동안 조사 활동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최종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사업실행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9월 6일에는 멘토링 클래스의 오리엔테이션 직후 17기 워크숍 클래스 수료생들을 초청하여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할 점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창업팩토리의 교육 의도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운영에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답하였다. 하지만 주춧기관의 욕심으로 짧은 시간에 서로 너무 많은 성과를 기대하였기에, 수업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었다는 불만과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다.

애초부터 지원과 교육을 연계한 실전형 교육과정임을 천명하였기에, 짧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바로 창업 또는 사회적기업 전환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 지으려다보니 수강생들에게는 다소 버거운 일정일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에 수강생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수강생간의 만남이 주선되기도 했다. 수강생들의 조직화 정도, 사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한 가상의 창업 아이템 제시 등 협업을 유도하여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서로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여 급박하게 맺어진 협업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반면, 늘 느슨하게만 사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생각만 해오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를 얻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되었다.

문화예술단체는 늘 어려운 형편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다. 이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제 돈 벌 궁리를 해보라고 새로운 영역으로 유도하는 과정은 과도하게 친절한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이미 세팅된 로드맵과 성과 목표를 한정된 기간 안에 달성하려다 보니, 아직 망설이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냉혹하기만 한 시장 현실과 달리 과잉 친절과 배려로 등을 떠밀고 끌고 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실제 기업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난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문화기업가 스스로의 내발적 동인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 친절한 공공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 1기 워크숍 클래스 수업 장면.

서비스가 그들의 야성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돈보다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창업팩토리 과정은 교육과 연계하여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협력과 동시에 경쟁 관계가 존재해서 자연스러운 협업이 어려웠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기업활동에서는 예술가적인 기질을 못 버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사업아이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손해를 보더라도 고수하겠다는 고집,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 당연히 대박 나겠다는 환상 등이 외부와의 협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주체 기관은 문화예술단체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매개자로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워크숍 클래스에서도 서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의 장점을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상의 사업 조합을 제시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예술스러운' 사람들 간의 협업은 본인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 공유 후에, 스스로 설정한 방향성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고서야 겨우 시작될 뿐이었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사전 공유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만남과 정보 전달 플랫폼 구축, 사업 구상을 위한 상상력과 내발적 동기를 자극하는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또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서울문화재단이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그래도 남은 고민은, 아무리 훌륭한 방법론이 개발되더라도 결국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사람과 네트워크를 길러내는 데 중요한 것은 재원의 투자보다 시간의 투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 행정의 시간과 반드시 같이 가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문화기업 창업팩토리 참가자들에게 듣다



이원혜 은하수프로젝트

지역 기반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구성
"강의들이 흥미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좋았지만, 평가와 성과가 네트워크를 방해한다. 반면, 그동안 너무 느리게 진행하다가 속도를 낸 계기가 되어 좋았다."



정은형 미디어트

스마트 환경을 위한 인형극과 교육 프로그램
"창작자와 기획자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강의 과정 중 어려웠던 것을 창업 후 시행착오를 미리 겪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소주 올레-문래

문래창작촌 문화투어
"교육과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창업의 초기단계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좋았다. 반면 협업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허명웅 머그데이

도심형 북 페스티벌 Mug Day 개최
"수강생끼리 서로 배울 수 있어 가장 좋았다. 서로를 더 긴밀히 연결해 줄 코디네이터 역할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



김혜진 서울씨어터서비스

소외청소년 공연장서비스 중보자 육성으로 재사회화 지원
"서울문화재단연합회에서 늘 생각만 하고 시행을 못하던 아이템이 아카데미를 통해 실행의 탄력을 얻고 살아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김호종 한국장애인문화복지지원회

장애인 문화예술인 소식지 발간사업
"사회적기업 시작 전에 이 강의를 들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은영 오방놀이터

미운형 키즈카페
"지금 당장의 동업이 아니고 나중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는 기회로서 좋은 네트워크였다. 문화예술단체로서 잘 모르는 부분들로만 강의를 구성되어서 신선했다."



사랑의 은유

조용한 궁궐에 바람이 분다. 세자가 사라졌다.
 궁궐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를 되짚고 숨 가쁘게 오가며 세자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한바탕 바람이 지나간 자리, 죽어가는 내시 구동이의 손에서 굴러 나온 살구 한 알.
 그 살구는 미친한 곳에 있던 내시 구동이와 중전의 몸종 지숙이가 나누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유일한 증표다.
 지숙이가 구동이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살구 한 알이 시글프도록 시린 자태로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은유를 담고서...

고궁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사진_극단 죽도록 달린다



육해진 <튜브>

199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의 미학을 고찰하다

〈조용한 행성의 바깥〉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조용한 행성의 바깥〉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기획한 미디어 아트 컬렉션 전시다. 일반 대중들의 기억에 쉽게 각인되는 이벤트적 상품성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전시는 광범위한 홍보효과를 누리지는 못했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해외 거장들의 명단을 필두로, 정해진 기간 내에 놓치지 않고 봐야 한다는 한정성을 내세우는 전시 홍보의 전성성은 이 전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평단의 분위기로 볼 때 동시대 한국 미디어 아트신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들로 인정받는 8명의 참여작가 명단은 (마치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일천한 대중적 이해도를 반증하듯) 일반인들이 쉽게 기억하는 이름들은 아니다. 국내 작가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알만한 해외 유명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 전시를 위해 특별히 집결시킨 것으로 전시를 진행하는 기획전으로서의 외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종료 후 다시 미술관의 수장고에서 영구히 소장되며 언젠가 다시 대중들에게 선보일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다. 전시 기간은 종료 시점이 명기되지 않아 한정된 기간에 대한 긴장감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인기 전시'의 요소들은 모두 '기획전'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기획의도를 갖고 집중력 있는 준비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공개되는 기획전은 국내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전시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전시보다 기획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은 국내 미술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빈약한 층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해외의 미술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탄탄한 소장품 목록을 기반으로 여타의 미술관들로부터 차별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이

다. 세계 굴지의 미술관들이 가진 처음과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작품 목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작품 소장 기조와 평가, 연중 투입되는 예산 등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국내 미술관의 소장 문화는 빈약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술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인데, 소장품 목록이야말로 미술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평가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디어 아트 컬렉션이 갖는 가능성

물론 미술관의 역사상 우리는 분명 후발주자다. 서구에서 이식된 제도인 만큼 자생적으로 경륜을 쌓을만한 역사가 부족했다. 더구나 서구의 대형 미술관들이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에 획득한 전리품들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것에 반해 우리는 피침략자로서 진귀한 문화적 유산들을 획득하기보다는 역으로 약탈을 당한 역사가 더 많았다. 등가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후진성을 용인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다른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전략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침략을 통해 노획한 전리품에 기반을 둔 물질적 자산이 서구 미술관들이 가진 비교우위적 측면이라면 우리의 미술관들은 동시대적 특징과 비물질적 형식에 기반을 둔 신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으로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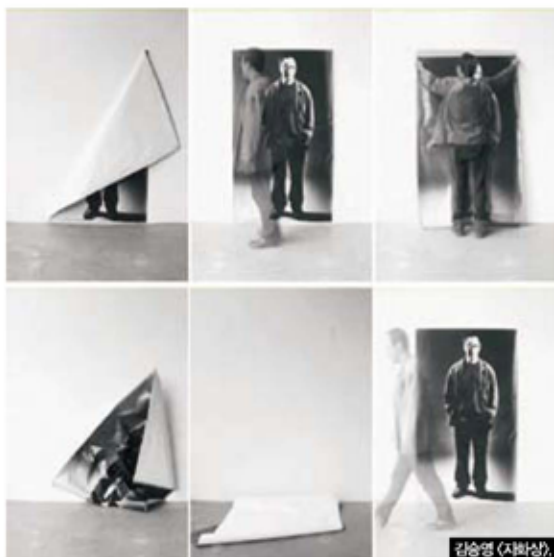
때를 맞추어 현대 미술은 점점 물질의 한계들을 거부하고 원형적이고 개념적인 영역으로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수십 년간 '제왕적 큐레이터'로 세계 미술계에 막강한 권위를 행사했던 스위스 출신의 헤랄드 제만(Harald Szeemann)이 본격적인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가 1969년 베른의 쿤스트할레에서 기획했던 전시 '태도가 형식이 될 때(When attitudes becomes form)'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전시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 내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을 앞에 둔 심적 상황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작가의 정의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음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던 것이다. 기존의 '화이트 큐브'의 제도적 권위를 거부하고 물질화될 수 없는 개념과 과정, 정치적 혹은 정서적 사유 등이 작품의 요체로 자리를 잡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의 영역 또한 분명한 존재영역을 확보했다. 미디어 아트의 시작은 이처럼 완성된 작품의 물질성을 이용하는 제도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견지하던 작가들의 표현 도구로서 이용되어 온 것에서 비롯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비약적으로 진보해온 영상처리기술은 단순한 저장 도구로서의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 기존의 물질로는 표현 불가능한 상상의 영역을 개척하는 새로운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오늘날 미술시장의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아트는 동시대의 주류 담론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형식이며, 특징 범주의 양식성을 탈피하고 현대 미술의 보편적 방법론으로서의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 아트의 비물질적 특징과 현대미술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국내 미술관의 후발주자적 상황에서 살펴볼 때, 국내 미술관이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뒤쳐진 소장품 역량을 만회하는 전략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을 따지기 이전에 미디어 아트 작품의 소장은 현대미술을 주로 하는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 목록에서 빠질 수 없게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시 공간의 제약을 보완한 아이디어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 아트 소장품 특별전으로 명명된 〈조용한 행성의 바깥〉전은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8명의 작품 10점이 전시되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1990년대 한국의 미디어 아트신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했거나 그 시대의 미학을 대표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1990년대는 한국 미디어 아트의 역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비약적인 진보를 거듭 시기다. 굳이 '나름대로'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축적된 미학적 자산들이 적절히 절충되어 그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린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1990년대에 미디어의 특별한 미감과 표현의 확장 가능성에 매료된 일군의 작가들은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눈부신 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이 선보인 세련된 감수성과 깊이 있는 개념이 응축된 작품들은 당시의 시대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현대 미술의 본질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들로서 해외의 작품들에 비해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 때문에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장소의 권위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미학적 역량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 아트가 독자적인 감수성과 자생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도달한 미학적 정점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이유가 있다.

이번 전시가 진행된 제2원형전시실은 위에서 언급한 미디어 아트 미학의 정점을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너무도 불



리한 환경이다. 원형으로 휘어 있는 전시장은 벽면 위에 영상 이미지를 투사하는 설치조차 불가능하다. 미디어 아트 작품의 전시에서 각 작품별로 발산되는 빛과 소리가 다른 작품의 감상에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 공간을 분리시키는 등 건축적 요소를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또한 투사되는 영상과 소리의 표현 가능성은 물리적인 공간의 크기 및 배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제2원형전시실은 좁은 면적과 낮은 천장, 그리고 특별한 벽 구조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큐레이터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 감각이 있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모색했다. 그들은 전체 공간을 어둡게 하여 블랙박스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각 작품들의 러닝타임을 모두

합치면 1시간을 훌쩍 넘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간에 휴식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아카이빙 공간을 조성해 놓았다. 출품 작가들의 자료들이 비치된 아카이빙 공간은 도서관과 같은 몰입을 유도하는 분위기와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선보이는 기술적 방법론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의 건축적 한계성이 너무 강한 탓에 10점에 불과한 출품작품들을 넉넉하게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다. 여하튼 10점의 작품들 중에서 이번 전시가 가진 가장 큰 가능성으로서 199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의 특별한 감수성과 높은 미학적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 미학의 정점

전시장 초입에 가장 먼저 선보인 작품은 고(故) 박현기의 1998년작 〈도시의 지하철역에서〉다. 1942년 출생하여 2000년에 작고한 박현기는 한국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현대미술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박현기는 주로 미국과 독일 중심의 서구 비디오 아트가 취한 선언적, 혹은 매체



박현기 〈도시의 지하철역에서〉

한국의 미디어 아트가 독자적인 감수성과 자생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도달한 미학적 정점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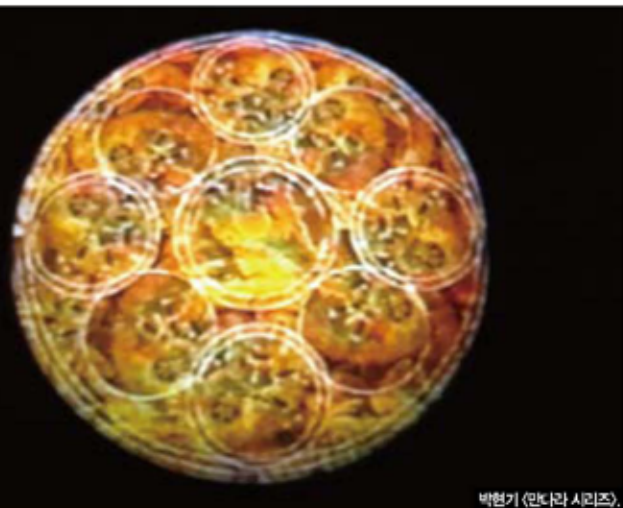
작품에 담겨 있는 키네틱적 요소들은 그의 미학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의 미디어는 엄격하게 통제된 조각적 오브제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육체진이 설치와 결합된 미디어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작가적 사유가 드러나는 모종의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론을 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오브제들은 작가의 수공적 미감으로 인해 빼어난 세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아한 외형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력이 내재해 있다. 벽면에 투사되는 이미지와 중앙에서 재현되는 이미지가 함께 회전하는 것은 미디어 아트의 이미지가 가진 물리적 층위와 그것이 이야기하는 공간감적 가상환경이 합쳐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명료한 상황의 설정만으로 육체진은 관객을 그가 만든 새로운 시공간으로 단번에 위치이동 시키는 것이다.

그의 다른 작품 〈튜브〉는 그러한 가상성을 보다 집약시켜서 구현한 것이다. 그전까지의 육체진의 작품이 관객이 속한 공간의 큰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물질성과 비물질성간의 교차를 야기했다면 2004년작인 〈튜브〉부터는 관객의 상상력을 더 구체적으로 자극시킴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또한 전작들에서도 보였던, 마치 유명과도 같이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결코 물리적으로 조우할 수 없는 이미지를 등장시킴으로써 미디어의 물질성과 실재의 비물질성간의 멀고도 가까운 관계에 대한 사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승영은 스스로 속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소통과 기억, 흔적과 같은 것들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작품세계의 주축은 설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1999년에 만든 〈자화상〉은 분명 199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의 세련된 미감과 본질적인 가능성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그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전신사진을 벽에 붙여 놓는다. 그러나 그 사진은 이내 북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다시 나타나서 그 사진을 붙이기를 반복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자신의 허상을 벽에 붙이는 주체 또한 재현된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한 이중적 비물질의 상황을 통해 그는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자신의 강박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육체진의 작품과 김승영의 작품은 공히 작가의 내면에 존재하는, 규정될 수 없는 의식의 모호성을 표현하는 거울과 같은 속성으로서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이다.

요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의 〈조용한 행성의 바깥〉전에는 두 가지 측면의 관련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국내 국립현대미술관의 컬렉션과 관련한 비교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장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일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목할 만한 미학적 성과와 선명한 개념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세대로 원활히 계승되지 못한 199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의 대표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물리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공간과 씨름한 전시기획전의 아이디어 또한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요소다.



박현기 〈만다라 시리즈〉

중심적 성격의 작품들과는 다른 컬러를 갖고 있다. 그는 물성을 관조하는 정신세계의 추상적이고 명상적인 사유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디오를 활용했는데, 이는 한국의 비디오 아트의 한 갈래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하철역에서〉는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가 1913년 출판한 동명의 시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도시의 지하철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젖은 꽃잎으로 비유한 상징시의 시각적 면모를 비디오로 구현한 작품이다. 소음으로 가득한 지하철역을 분주히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하는 숫자와 교차하며 보여줌으로써 도시를 메우고 있는 현대인들의 익명성에 대한 작가의 관조를 표현하고 있다. 그의 다른 작품인 〈만다라 시리즈〉는 제단에 배치된 부처상의 위치에 다양한 책에서 수집한 만다라의 이미지들과 수십 개의 포르노 그래픽 영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의 궁극적인 정신세계와 세속의 자극적인 감각세계가 이미지의 용광로 속에 하나로 융해되는 느낌을 받게 한다.

1961년 출생하여 2008년에 사망한 고(故) 육태진은 해의로부터 유입된 비디오 아트의 전형성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미디어 미학을 구축한 작가다. 작가 자신 혹은 익명의 누군가가 등장하여 단순한 움직임만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 그의 작품은 붕괴된 모더니즘적 자아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사유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 〈보행자〉에서는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걷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담은 흑백 영상이 투사되고 있다. 벽면을 향해 이미지를 발산하는 중앙의 투사장치는 동일한 이미지를 재현하는 모니터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그 모든 장비들이 올라가 있는 원판이 360도 회전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미지는 공간을 따라 지속적으로 회전하고 있다. 육태진의

Review



문래동에서 1박 2일

문래예술공장
〈24시간 만화그리기 프로젝트〉

“후루룩 찹찹...” 8월 2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문래3가 54-41,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는 예술공간 ‘문에 국내외 만화가와 일러스트 작가, 미술가 등 11명이 모였다. 왁자지껄 대화도 나누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줄 알았다. 이들이 손에 든 것은 펜이 아닌 젓가락. 책상 위에는 원고 대신 짜장면 그릇이 놓여 있다. 이들은 “속삭속삭” 그림 그리는 소리 대신 “후루룩 찹찹” 소리를 내며 아침 겸 점심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있었다. 8월 27일 오

후 3시부터 만화를 그린 이들은 이튿날 오후 3시까지 24쪽짜리 만화 한 편을 완성해야 했다. 제한된 제작 시간 때문에 식사도 짜장면으로 간단히 때웠다. “아침(아침 겸 점심), 아니 브런치죠”라며 웃는 만화가들 사이로 간이침대가 보인다. 밤새 만화를 그리다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한쪽에 ‘침실’을 마련해 둔 것. 금방 누군가 자다 일어난 듯 침대 위 이불은 돌돌 말려 있다.

철공소가 모여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 최근 이곳에 예술 작가들이 하나둘 모여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한다. 이날 열린 〈24시간 만화그리기 프로젝트〉는 만화가 11명이 모여 각자 24쪽 분량의 만화를 27일 오후 3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완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시가 조성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장작공간 문래예술공장에서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 중 하나. 만화를 주제로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시간 만화 그리기는 해외 만화가들에겐 유명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미국 유명 만화가 스폫 맥클라우드는 슬림프에 빠져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린 만화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자는 취지”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문래동 프로젝트는 만화가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만화가 전지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만화를 그리고 있는 작가들.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화가.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만화를 '문'에서 전시했다.

씨는 “한 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는 만화를 아직도 저급한 문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작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 편의 만화를 만드는지 제작 전 과정을 공개해 그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이들의 작업 과정부터 밥 먹고 자는 모습까지 옆에서 볼 수 있다. 만화가들이 모여 있어 다소 우중충할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꽤 아기자기했다. 입이 심심할 때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각종 과자가 놓여 있었고, ‘영감’을 일깨워주기 위해 모던록밴드의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관람객도 만화를 그릴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었다.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괴물이라도 그리세요”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참가자 11명은 만화가부터 일러스트 작가, 사진작가, 미술가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다. 고등학교 그래픽 디자이너부터 30대 직장인 만화가까지 경력이나 나이가 다양하다. 밤에는 작가들끼리 술 한 잔을 주거나 받거나 했다. 하지만 밤을 새야 했기 때문에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조용히 술만 마셨다. 28일 새벽 1시에는 쉼없는을 앉애했다고 문래동에 사는 뮤지션들이 작업실을 찾아와 공연을 열기도 했다.

골방에 틀어박힌 만화는 이제 그만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한 참가자들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밥을 빨리 먹는 것은 기본이다. 시간이 없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야 했다.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평소 캐릭터에 그림자를 많이 넣는다는 전지는 씨도 이날만큼은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다. 컷도 최대한 큼직하게 했다. 이날 24쪽짜리 만화를 완성한 사람은 5명 뿐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내 얘기’를 하려 했다. <돈빌레>라는 만화를 그리는 아마추어 만화가 유승종 씨도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시절 <슬램덩크> <드래곤볼> 같은 일본만화에 빠진 그는 만화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청강문화산업대 만화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는 돈만 밝히는 것 아닌가, 순수했던 모습은 사라진 건가 하는 자신의 고민을 만화로 표현하고 싶었다. 프로젝트 참가 소감을 묻자 “스파르타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며 손사래를 쳤다. 고된 과정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만화 한 편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혼자서만 만화를 그리다가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재게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한국작가들 사이에서 외국인도 만화를 그리고 있었다. 독일에서 온 카트린 바움게르트너 씨가 그 주인공. 회화를 전공한 그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이유로 어릴 적부터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그림을 그리자”며 최근 서울에 왔고 문래동에 정착했다. 그에게 행사 참여 소감을 묻자 “4년 전 독일에서 비슷한 행사가 열려 낯설지 않다”고 한국어로 말한다. 그가 한국에서 잉크와 매자를 이용해 그리는 만화의 제목은 <내 머릿속의 기사>. 기사를 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주인공에 대해 그는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했다.

이들이 그린 작품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문’에 전시됐다. “무엇 때문에 잠 안 자고 24시간 동안 만화를 그렸나”라며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린 관람객도 있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에 작가들은 화내거나 답답해하지 않았다. 대신 전지는 씨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만화가들은 늘 방에 틀어박혀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죠. 작가의 외곽 철학도 좋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파티와 결합한 만화 행사, 미술작가들과의 협업 등 ‘골방 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Review



피할 수 없는 불편함

영화 <도가니>와 소설 <도가니>

●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안개가 온 도시에 내려앉았다. 그 사이로 한 꼬마가 터벅터벅 기차길로 걸어간다. 카메라의 정면을 응시하는 꼬마의 표정은 단호하다. 뚜연 안개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기차는 순식간에 꼬마의 자그마한 몸을 집어삼킨다. 이 시간, 강인호(공유)가 운전하는 자동차 역시 안개 속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노루를 친다. 영화 <도가니>의 첫 시퀀스만 보고는 왜 꼬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강인호가 당도한 안개 마을은 어떤 곳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진실은 안개에 가려져 있고, 안개는 무진이라는 도시에서 흔한 현상이라는 암시만 내비칠 뿐이다. 어쩌면 <도가니>는 안개에 가려진 어떤 진실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무진에 도착한 강인호는 청각장애인학교 '자애학원'에 부임한 미술교사다. 자동차 앞 범퍼를 수리하기 위해 들른 카센터에서 강인호는 서유진(정유미)을 만난다. 이 여자는 무진 인권센터 간사다. 서유진의 안내로 그는 자애학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부른 기습을 안고 들어갔지만 학교는 그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그의 호의에 눈치를 보고, 심지어 피하기까지 한다. 생김새부터 기본 나쁜 쌍둥이 형제인 교장과 행정실장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작은 거 5장"을 요구한다. 기분이 나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그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의 비명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때부터 강인호는 서유진과 함께 자애학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애학원에 관한 진실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 원작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장애인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서 출발한다. 문제의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 그리고 교사가 약 4년 동안 7세에서 22세에 이르는 학생 8명 이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것도 학교 안에서 말이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가



해자를 고발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는 천막 농성을 벌였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4년 가까이 진행된 지난한 재판은 이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교장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행정실 직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실형 없이 2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평교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지만 공소권 만료로 실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학교는 최근까지도 교명을 세탁하려고 시도했다. 죄의 무거움에 비해 지극히 가벼운 심판이었다.

가장 처절하고 불쌍한 복수극

소설 <도가니>는 그 분노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그러나 공지영 작가는 재판 과정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둘러싼 인간들의 현실적인 삶, 지극히 폐쇄적인 무진이라는 도시를 묘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단순히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닌 듯하다. 원작에서는 강인호에게 아내가 있고, 서유진은 강인호의 대학 선배로 설정됐다.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다 피해자 아이들 앞에서 재판 과정을 함께하는 강인호의 지난한 삶에 서유진이 조금씩 들어간다. 그때마다 강인



1·2·4·5 영화 <도가니>.

3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

호는 현실과 도피 사이에서 매번 고민한다. 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오랫동안 형성된 폐쇄성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주저하는, 부연 안개로 대비되는 무진과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야기의 결론도 실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설 <도가니>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면 가해자가 큰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설정과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이 현실성에 기대는 소설과 달리 영화 <도가니>는 간결하고 다소 환타지적이다. 아내와 딸 그리고 서유진, 과거의 한 여학생 등 여러 인간관계, 아니 여자관계에서 고민하는 강인호의 짐은 영화에는 없다. 영화 속 강인호는 오로지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해자 학생들의 편에 선다. 서유진 역시 무진 출신 인권센터 간사로 설정되어 강인호, 학생들과 함께한다. 이들은 자폐학원 측과 대결 구도를 이룬다.

흥미로운 건 이 잔인한 사회에서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에 영화 <도가니> 속 어른들은 답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나선다. 아

이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되갚는다. 그것도 가장 비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이 점에서 영화 <도가니>는 근래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가장 처절하고 불쌍한 복수극이기도 하다. 그게 현실이 아닌 환타지적인 장치라서 더욱 씁쓸하다.

그 점에서 <도가니>는 불편한 영화다. 소설이나 영화 모두 섬뜩하게 묘사된 미성년자 배우들의 강간 장면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관객은 무능한 어른의 모습을 마주해서 불편하고, 영화 속 아이들이 처절하게 방치되어 있는 풍경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나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될 불편함이기도 하다. 강인호 역을 맡은 공유는 배우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정유미 역시 제 몫을 거뜬히 해낸다. 무엇보다 연두(김현수), 유리(정인세), 민수(백승환) 등 청각장애인을 연기한 세 아역배우가 없었다면 영화 <도가니>는 존재하기 힘든 작품이었을 것이다. 특히, 수화로만 진행되는 재판 장면은 단연 긴장감이 넘친다. <마이 파더>(2007)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무르스 피셔 <무제>

Venice

‘빛’으로 물든 예술 속으로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일시 _ 11월 27일까지
장소 _ 지아르디니 공원, 아로세날레 외
문의 _ www.labiennale.org

비엔날레가 지정한 테마가 뭐건 관전 포인트는 언제나 가장 앞질러간 실험작과 일련의 소동에 쫓긴다. 당대 미술의 최전선을 요약하는 54번째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제는 ‘일루미네이션’(조명, 빛)이지만, 정작 이목을 사로잡은 건 노장의 귀환이었다. 유수의 세계적 비엔날레는 전성기를 누리는 생존 작가들 중심으로 출품작을 편성하는 법이다. 설령 과거 전설적 거물에게 전시실을 안배한들 그에 대한 후대의 오마주 형식으로 제한되게 마련이다. 한데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의 본관 전시에 해당하는 지아르디니 센트럴 파빌리온의 웅장한 메인 홀을 통째로 배당받은 이는 무려 500여 년 전의 르네상스 화가 티토레토(Tintoretto)였다.

전시된 티토레토의 원작들과는 차원이 다르나, 우르스 피셔(Urs Fischer)의 출품작도 피렌체의 공공 광장에 설치된 르네상스 조각가 장볼로냐(Giambologna)

의 16세기 후반 조각 <사빈느 여인의 강탈>을 3D 스캔한 후, 동일 크기의 초로 만든 일명 초 조각 <무제>(2011년)이다. 이 초 조각은 개막당일 심지에 불인 볼로 작은 빛을 발산하면서 서히 녹아내리는 중이다. 매일 조각의 형체가 조금씩 변형되는 지루한 과정 예술인데, 고전 걸작을 카피한 몸통 전체가 느린 속도로 붕괴가 되면서 기나긴 비엔날레 기간을 지탱한다는 사실이 초대형 행사의 한시성을 시사하는 듯하다. 티토레토의 원작 소환과 우르스 피셔가 대형 초로 패러디한 장볼로냐의 르네상스 대리석 조각은 닮은 점이 있다. 두 원작이 르네상스의 완고한 미적 전통을 거스른 매너리즘 실험에 토대를 둔 이단아의 작품이라는 점과, 티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광배를 도드라지게 묘사한 빛의 효과나 우르스 피셔의 대형 초 조각의 붕괴 심지는 작은 빛줄기 하나로 해당 작품 전체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전시 테마 ‘일루미네이션’에 몸소 근접한 이 두 작품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도발적 도전이었을 매너리즘 미학에서 가져온 것이다.

공간이 더한 작품의 의미

지아르디니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국가관들은 우연히도 모두 비엔날레가 배정한 국가관의 내부 구조를 재편해서 작품의미를 더한 경우였다. 세계 분쟁 현장을 촬영한 끔찍한 미공개 보도사진들과 은박 포장지를 거칠게 테이핑으로 감싼 실내 공간을 내세운 토마스 허쉬호른(Thomas Hirschhorn)의 스위스



이응백의 <피에타>가 전시된 한국관.



안드로 베쿠아 <문물 열경 사냥꾼>.

관은 시각적 충격과 작가 지명도 탓인지 관객이 운집해 있었다. 전 세계 보도사진은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예술 창작의 보고(寶庫)로 활용되는데, 그 사실을 유감없이 입증한 허쉬호른이 선별한 엽기적 사고사진은 앞서 2010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소개된 바 있다. 국가관 내부를 전면 재설계한 예로는 영국관의 마이크 넬슨(Mike Nelson)을 들 수 있다. 터너상에 두 번 노미네이트된 이 작가는 현대미술에서 설치가 차지하는 미학적 영역을 최대치로 확장 실험하고 있다. 천장 높은 영국관의 실내에는 층층 구조로 개조되어 임시 계단이 각층을 연결하면서 공간을 세분화한다. 비좁은 복도로 연결된 미로와 정제 모를 방들과 암실, 그 모두가 작품이다. 입출구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개조한 국가관의 내부를 어슬렁대는 것이 관객이 체험하는 관람의 또 다른 차원이다.

지난해 작고한 크리스토프 슈링엔시프(Christoph Schlingensiefel)를 대표로 세운 독일관은 국가관 내외부를 모두 개조했다. 작품 구상 전 작가가 작고한 경우에서 누구의 심증이 반영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독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Germania'가 음각으로 렌 독일관 상판 글씨의 앞부분을 'Egomania'(자기중심주의)로 임의 수정했다. 비록 작가의 회고전 형식을 취했지만, 독일관의 관전 포인트는 재구성된 독일관 건물 자체였을 것이다. '자기중심주의로 개명된 국가관 이름이 실외의 변화였다면, 실내에는 작가가 유년기에 복사(사체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로 있었던 교회당의 내부를 재현했다. 사망한 작가에 대한 예우였는지 독일관은 올해 국가관 부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2008년 처음 제작된 이응백 작가의 입체조형물 <피에타 Pietà>는 2011년에 새로 제작되어,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한

국관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호된 도상인 죽은 예수를 애도하는 마리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기존 피에타 도상으로부터 채워만 빌려온 이응백의 <피에타>는 애도하는 마리아에게서 모성애가 느껴지거나 사망한 아들 예수에게서 비애감이 묻어나지 않고, 바네킹처럼 무감동해 보인다. 현대 문명에서 종교적 도상의 본질을 큰 사이즈로 구체화한 모습이 그가 해석한 현대적 피에타다.

전시장 바닥에서 비엔날레 압축본을 발견하다

아르세날레 파빌리온에는 최고의 젊은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은사자상을 수상한 영국작가 하룬 미르자(Haroon Mirza)의 작품이 전시 중이다. 그의 <The National Apavilion of Then and Now>(2011년)는 아르세날레 파빌리온 내부에 지은 초소형 파빌리온으로 내부는 보폭하고 검은 발포 고무 흡음벽으로 감싼 무반향실(無反響室)이다. 내부 천장에서는 원형 LED가 24초간 차츰 환하게 켜지다가 갑자기 꺼지면서 18초간 유지된다. 밝아지던 방이 예고 없이 암전되면서 캄캄한 방에 남겨진 관람객은 영문 몰라하다가 숙연하게 방을 나선다.

성인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에 가로 세로 3x30m가량의 젓빛 콘크리트 좌대(라기보다 차라리 덩어리)가 아르세날레 파빌리온에 입장한 관객을 맞는다. 안드로 베쿠아(Andro Wekua)의 <분홍 물결 사냥꾼>(2010~2011년)이다. 네모반듯한 시멘트 덩어리 위로 15개의 축소된 건축 모델들이 올려져 있는데, 제단 모양새이거나 건물 파사드만 강조했거나 무너진 철근다리 형상을 취했거나 더러 초현실주의자 드 키리코처럼 변형된 원근법을 적용한 듯 모형의 공간을 잡아 늘린 건축 모델들이 늘어서 있다. 보는 이의 향수를 자극하는 구시대 건축 양식 15종이 선별되었는데, 이들은 작가가 유년기를 보낸 고향 마을의 건축물들을 아련한 기억으로 되살렸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참조하여 만든 모델이다.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격인 지아르디니 센트럴 파빌리온에서는 작가의 존재감을 고의로 지워버린 것 같은 작품 두 점이 역설적으로 부각되었다. 베니스 근교 파도바 태생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은 파빌리온 입구부터 관객을 맞아 파빌리온 내부의 모든 전시실에 개입하고 있다. 틴토레토에게 허용된 대형 흉의 높다란 천장부터 작년에 사망한 현대미술의 거물 지그마 폴케(Sigmar Polke)의 전시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시실 천장 위로 <타인들>이란 제목을 내건 비둘기 박제 2천 마리를 올려놨다. 비엔날레 전체에 산개한 것이다. 전시실 천장에 올려진 박제 비둘기는 해당 전시실 출품작 감상에 방해가 되는 훼방꾼으로 어느 전시실을 가건 카텔란이 접수했다. 반면 작품 행방이 묘연한 비석도 있다. 영국인 라이언 간더(Ryan Gander)의 <많은 유로는 여기 없다>(2010년)는 통일 콘셉트로 25달러로 제작한 적도 있는데, 벽에 작품은 걸려 있지 않고 "2006년으로부터 떨어진 25유로 짜리 동전이 이 방에 있다"라는 지문만 적혀 있다(동전 형식 유회의 최고가는 현재 2유로). 물가 상승으로 지폐였던 금액이 동전으로 바뀌는 추세를 감안한 유머 같은데, 이 유쾌한 화폐위조 아트를 찾으려고 전시실 벽을 헤집다가 우연히 바닥을 바라봤다. 전시실 바닥에 붙어 있는 25유로짜리 동전. 위조된 작은 동전 한 닢의 썰렁한 유머에서 거국적 아트 이벤트의 압축된 진면목을 본 기분이 들었다.

New York

예술은 가까이

뉴욕 곳곳에서 만나는 공공미술



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신경 쓴 하이 라인의 조경은 주위의 현대적인 건축물과도 어울린다. 연 오른쪽에 보이는 해체적인 구조의 흰 건물은 스텔라 개리가 설계했다. ① 신지은

뉴욕은 길어서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도시 중 하나다. 그에 더해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아 공공미술이 꽃 피우기 좋은 여건을 가졌다. 뉴욕의 코너를 돌아 보면 주위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벽화, 모자이크, 조각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공공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하이 라인(www.thehighline.org)을 방문해보자. 하이 라인은 1930년대 맨해튼 서쪽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었던 고가 철도였다. 1980년대 이후로 철도가 다니지 않으면서 버려진 공간이 되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꾸몄다. 2009년부터 부분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1년 봄에 모든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하이 라인이 위치한 갠스부르 스트리트부터 34가까지는 과거 공업지대

였지만, 이제는 패션, 갤러리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 하이 라인의 역사와 더불어 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신경 쓴 공원 조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미술이라 할 만하네, 하이 라인은 미술작품과 이벤트 등을 더해 지속적으로 뉴욕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설치와 조각으로 유명한 세라 지(Sarah Sze)와 줄리언 스와츠(Julianne Swartz)의 작품 등을 하이 라인에서 2012년까지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지하철을 타고 14가와 8애비뉴가 만나는 역에서 내리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공공미술이 있다. 만화 같지만 날카로운 정치, 사회 풍자 메시지를 담은 청동 조각으로 유명한 톰 오테니스(Tom Otterness)의 작품이 지하철역 곳곳에 포진해 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으로 뉴욕시 지하철과의 협업을 통해 마지막 조각을 지하철에 설치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는 작품의 제목은 〈라이프 언더그라운드〉. 뉴욕 지하철의 역사와 뉴욕 전설에서 영감을 얻은 〈라이프 언더그라운드〉는 직설하게만

예술가 톰 오테니스

“공공미술은
광장 같은 기능을 한다”



② 신지은

12명이 일하는 큰 스튜디오이 사장인 톰 오테니스는 작업을 할 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아이처럼 된다고 고백한다. 수줍어하되 잘 웃고, 솔직하게 여러 의견과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좋은 인터뷰이기도 하다. 최초의 아이디어를 단단히 지키되 모든 요청과 요구에 ‘예’라고 대답하며 공공미술을 완성하는 지리하고도 긴 과정을 이루어낸다는 헌명한 예술가 톰 오테니스를 만났다.

작품이 설치된 지하철역에서 자주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들었다.

지하철역에 가면 누군가가 꼭 내 작품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작품을 만지고 있다. 언제 나 만지기 쉽고 만질 수밖에 없는 장소에 내 조각을 설치하려고 한다. 청동은 손길에 강한 편이며, 손길이 닿을수록 더 멋있어진다.

회기였다가 조각가가, 그리고 공공미술로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왜 공공미술을 시작했는가?
1970년대 중반 50여 명이 뭉친 아티스트 그룹이 일원으로 제니 홀저, 키키 스미스 등과 함께 뜻을 모아 집단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미술관에 쉽게 오지 못하는 관객들까지 고려해 예술작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폴 오터니스의 개구리 형상 조각. 제일 오른쪽에서 웃고 있는 어린이 폴 오터니스다. © Abigail Lootens

보이는 뉴욕 지하철역의 기본 좋은 포인트다. 뉴욕 지하철은 '메타에이 아트 포 트랜짓(MTA Art for Transi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전히 아티스트에게 뉴욕 지하철 풍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맡기고 있다.

공공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는 시청 공원이다. 퍼블릭 아트 펀드(www.publicartfund.org)에서 기획한 솔 르윗(SOL LeWitt)의 작품을 12월 3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솔 르윗은 2007년 작고한 개념미술, 미니멀리즘 작가로서 1965년부터 2006년까지 그의 작품 세계 4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 27점이 전시된다.

글_신지은 뉴욕에서 5년째 활동 중인 프랑스 저널리스트, 한국에서 국문학과 미술사학을, 사카고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품을 미술관 바깥으로 끌어내 공공장소에서 선보이고자 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각 언어인 만화적인 캐릭터와 이야기를 선택했다. 작은 조각품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4,99달러에 판매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커지고 커져서 지금 12미터의 작품이 되었다. (웃음)

좋은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 광장에서는 누구와도 정치와 커뮤니티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공공미술은 그런 기능을 한다. 리처드 세라를 존경하는데, 그의 작품을 통해 커뮤니티와 정치,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적도 대화 유발 기능도 없는 공공예술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광고와 기능, 목적으로 충만한 길거리에서 심포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폴리프론 호수의 스몰볼라이트. © Art Orienté Objet, 2011

Paris

예술, 환경과 결합하다

아르 오리엔테 오브제의
〈다른 모든 것보다는〉

일시_ 10월 5일~12월 10일

장소_ 메종 포퐁레르 9 bis rue Dombasle, 93100 Montreuil

문의_ www.maisonpop.fr, www.artorienteobjet.com

우리가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영역은 한계를 모르고 넓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과 신체뿐만 아니라 삶에 직결된 환경, 나아가 인간과 운명을 공유하는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를 예술의 관심사로 끌어들이고 있다. 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시작된 이러한 유기예술의 경향은 살아 있는 기관과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생명공학을 예술로 확장하는 시도로써, 인간의 생체 조직으로 인형을 만드는 전위적인 작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흐름에 속하는 예술 그룹 아르 오리엔테 오브제(Art Orienté Objet)는 생명공학과 적극적인 환경론이 접목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루블라나에서 열린 퍼포먼스 〈말이 내 안에 살게 하라〉에서 말 다리를 의족으로 착용하고 말의 피를 인간의 몸에 수혈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틀에서 벗어나 동물과 하나로 합치되고자 하는 강박을 보여준 바 있다.

10월부터 파리 근교 몽트뢰아에서 열리는 전시 〈다른 모든 것보다는〉에서는 호주 알고리즘 국립공원에서 발견되는 스몰볼라이트(Thrombolites)를 다루는 TV 토크쇼 형태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스몰볼라이트는 대기에 최초로 산소를 채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가 축적해 생성된 살아 있는 바위이다. 신비로운 생명체가 환경 파괴에 의해 사라져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참여적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들은 도발적인 개념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글_서도은 사회학, 철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현재 파리에서 영상미학 박사과정을 중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한다.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만드는 가드너' 북아트 프로그램

한 땀 한 땀,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책



책은 종이몽치다. 정보가 담긴 낱장의 종이를 모아 하나로 엮어 표지를 씌운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또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스티븐 킹은 책을 일컬어 부러 '정신감옥'이라 표현했다. 제자가 발신한 정신이 사공간을 초월해 독자에게 가 닿는 것. 그 매체가 바로 책이다. 정신 전달의 가능성을 사당한 나머지 책의 물질성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이의 촉감, 냄새, 디자인, 그림감... 대량생산으로는 섬세한 독자의 취향을 하나하나 맞추기 어렵다. 하지만 나의 취향을 100% 반영한 나만의 책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다. 내 손으로 디자인하고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북아트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들어보자.

책과 나의 연대기

1970년대, 강원도 한적한 읍새 서점집 뒤편이었던 나는 책 더미에 올라앉아 <선데이서울>과 <여학생> <여원> 같은 잡지를



탐독했다. 대여섯 살 여자아이가 수영복 화보를 보고 음습한 기사를 읽을 때 어른들은 그저 어린이가 아무거나 장난으로 넘겨 보려니 대수롭잖게 여겼다. 사랑과 욕망, 달달한 연애와 첫경험의 혼란, 배신과 증오... 세상의 이치가 그 안에 있었다. 그 잡지들은 가치 판단이 생기기 이전의 어린이에게 세상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었다.

1990년대, 여고생들 사이에서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만드는 것이 대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다. 종이를 이렇게 저렇게 잘라 본드로 붙이고,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일본 패션잡지에서 예쁜 페이지들을 오려 붙인 다음, 아스테지라 부르던 투명 비닐로 커버를 씌우면 끝. 8시 등교, 9시 하교, 중간에 밥 두 번 먹는 것 외에 별 낙이 없던 여고생들에게 결과물의 퀄리티가 어떨든 조물조물 만드는 행위가 주는 기쁨은 꽤 컸다. 인간에겐 소비 욕구 이상으로 생산 욕구가 내재해 있는지, 아니면 여고생 시절 창작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건지, 아무튼 소녀들은 필통을 시작으로 각종 케이스, 급기야 가방까지 왕성하게 만들어냈다.

2000년대, 서점집 딸은 편집자가 되었다. 어린시절 직착한 독서습관 그대로 학문을 담고 교양에 도움이 되는 책보다는 잡스러운 책들을 읽어치웠지만, 그래도 문학부터 만화, 실용서까지 닦치는 대로 책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편집자 생활 10년, 디

북아트앳 아트리에 김주하 대표

“책을
만드는 일이
행복하다”



김주하 대표는 디자인을 전공했다.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에 지쳤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공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것이 북아트. 천천히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 책을 만드는 일이 행복했다. 처음엔 이 일을 전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두 권 책을 만들다 보니 주위에서 자신의 책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기 시작했다. 재료 사용도 점점 대담해졌다. 형겅부터 나무, 금속과 보석까지. 책의 형태도 사각에 머물지 않았다. 생각이 뻗어가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만들다 보니 그야말로 북으로 아트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책 만드는 일이 많아지자 공방을 냈다. 고객은 한걸음 기념해 사집을 엮는 할머니, 주례사를 두루마리로 만들어 달라는 선생님, 고가의 책을 주문하는 기업체 회장님까지...

“북아트의 매력은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을 만든다는 거죠. 대량생산으로는 결코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어요.”

북아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강의도 자주 나간다. 이번 <문화술프로젝트>에서 만든 앨범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속한다. 초보자도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책이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점점 아트로 수렴하는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북아트앳 www.bookartat.com

자이너와 함께 책의 사이즈, 지질, 면지 색깔, 코팅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인쇄소에서 색깔 교정을 보고, 제본소에 출간일정 맞춰달라고 독촉은 해봤어도, 내 손으로 직접 책을 만들어본 적은 없다. 책은 고사하고 뭔가 만들어본 게 언젠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여고생 시절 하드보드지로 필통을 만든 게 마지막 인듯싶다.

자르고 붙이고... 하드커버 앨범 만들기

우연한 기회에 <문화술프로젝트>의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만드는 가드너’에 함께하게 됐다.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준비를 마분지 2장, 포장지 2장, 안양지 2장, 헤드용 종이 2장, 속지 30~40장, 자, 칼, 가위를 밑대

• 뒤표지만들기



1 헤드 부분 5cm를 연필로 표시한 다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풀림을 해 실면 약 1cm씩 여분을 남기고 포장지를 붙인다.



2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 잘라내고 여분의 포장지를 마분지를 겹쳐 붙인다.



3 포장지를 붙인 겉면에 헤드쪽에서 1cm 들어 선을 긋고 풀림을 해 헤드용 종이를 붙인다. 1cm씩 여분을 두고 모서리를 모려낸 후 겹쳐 붙인다.



4 안감으로 붙일 종이에 풀을 바른 후, 사방 모서리가 균일하게 남도록 주의해 붙인다.

진행된 '만드는 가드너' 프로그램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앨범을 제작하는 '북아트'. 평소 인쇄 제본 기술의 발달 이전에는 어떻게 손으로 책을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궁금증을 풀수 있었다.

준비물은 앞뒤 표지로 쓸 마분지 두 장, 속지로 쓸 A4 사이즈의 도통한 종이 30~40장, 표지에 씌울 예쁜 포장지 두 장, 헤드에 씌울 종이 두 장, 표지 안쪽을 마감할 종이 두 장, 도구는 자, 칼, 가위, 풀, 풀칠한 면을 고르게 다듬어 줄 밀대. 책을 제본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지만, 대량생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표지 종이를 200~300g 정도 두께로 쓰고, 속지와 표지를 본드로 붙이는 무선제본 방식(떡제본이라 부른다.) 표지가 딱딱하지 않은 책들을 떠올리면 된다. 그리고 속지를 실로 엮은 후 두꺼운 종이를 안에 대고 양쪽을 얇은 종이를 싸서 붙이는 사철양장. 하드커버라 부르는 책들이 그것이다.

이번에 만들 앨범은 표지에 두꺼운 종이를 대서 만드는 양장이다. 양장 책은 표지가 속지보다 조금 크다. 표지가 단단하고 속지의 모서리가 외부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속지가 A4 사이즈니까, 표지는 A4 사이즈보다 사방 5mm 정도 크게 만든다. A4가 210×297mm니 표지용 마분지는 220×307mm로 두 장을 준비한다. 뒤표지는 이 사이즈로 그냥 쓰면 된다. 앞표지는 뚜껑을 열고 닫기 쉽도록 속지와 밀릴 헤드 부분 5cm를 잘라낸 다음 5mm를 더 잘라내 공간을 띄워 연결한다. 이때 잘라낸 5mm 폭의 종이는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둔다.

마분지에 풀을 바르고 예쁜 포장지를 붙인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밀대로 잘 밀어준다. 뒤표지는 헤드 부분 5cm를 연필로 표시해 둔 다음 그 선에 맞추어 포장지를 붙인다. 포장지는 헤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마분지를 감쌀 수 있도록 1cm씩 여분을 둔다. 앞표지 역시 5.5cm를 잘라내고 남은 큰 면에 헤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1cm씩 여분을 두고 포장지를 붙인다.

'짜바리'가 뭐예요?

출판사에서 처음 일을 배울 때, 책과 관련된 용어들이 낯설어 어려웠었다. 책동은 세네카, 페이지 표시는 하시라,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장 제목을 써넣는 페이지는 도비라, 책 사이에 끼우는 실은 시오리, 인쇄 전 필름을 출력할 때 페이지 배열을 하는 것은 하리코미... 일부는 일본어에서 왔고 또 어떤 말은 이탈리아어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낯설고 이상한 건 매한가지였다. 그중 압권은 짜바리였는데, 짜바리란 양장책을 만들 때, 두꺼운 종이를 얇은 인쇄종이로 감싸는 걸 말한다. 주위에 양장책이 있다면 커버를 벗기고 한 번 보기를 권한다. 딱딱한 표지를 감싸고 있는 종이는 일반 책 표지 종이보다 훨씬 얇다. 그리고 표지를 펼쳐 보면 겉종이가 딱딱한 종이의 세 모서리를 감싸고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종이를 마감해 해둔 것이 보일 것이다. 신입 시절 선배들에게 "근데 이게 왜 짜바리예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물어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원래 전문용어란 것이 그렇듯 그냥 습관으로 사용할 뿐, 정확한 어원은 밝히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굳이 추론하자면 '짜바리'는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닐까 한다. 어감과는 달리 순우리말일 듯?

다시 앨범제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앨범 표지의 두꺼운 종이에 포장

“책은 역시 ‘정신감응’의 매체! 마분지를 자르며 필통을 만들던
여고시절을 떠올리고, 또 이렇게 만든 앨범은 가족과 친구와 또 앞으로
알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정보와 감정을 전달해 주겠지.”

지를 붙이는 작업이 발하자면 싸바리라는 이야기. 1cm 여분을 남긴 포장종이를 안으
로 감아줄칠해 붙인다. 모서리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1mm 정도 여분을 두고 삼각형
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낸다. 뒤표지의 헤드 부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헤드용 겹
종이를 붙인다. 이때 헤드 종이는 이미 붙여둔 포장지 위에 1cm 겹치도록 붙인다. 역
시 삼면 1cm씩 남겨 안으로 감아폴로 붙인다. 이렇게 겹 포장지를 붙인 뒤표지를 뒤
집는다. 옷의 안감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지 안쪽에 종이를 붙여 마감한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앞표지를 마무리할 차례. 일단 포장지를 바른 넓은 변의
모서리 처라는 뒤표지와 같다. 포장지를 붙인 변의 헤드쪽 끝에 연필로 1cm 안쪽에
선을 그은 다음 표시한 부분에 줄칠을 해준다. 줄을 바른 곳에 헤드용 종이를 붙여
준다. 이제부터 복잡해진다. 아까 잘라내 보관해 둔 5mm 남은 종이를 사용할 때가
왔다. 포장지를 붙인 앞표지를 뒤집는다. 헤드용 종이에 줄칠을 한다. 그 다음 5mm
종이를 앞표지 끝에 붙인다. 그리고 속지와 물릴 부분으로 잘라 둔 5cm 마분지를
그 옆에 붙인다. 그 다음 5mm 종이를 미련 없이 떼어낸다. 이로써 헤드 부분과 두
껍 사이에 5mm의 빈 공간이 생겼다. 헤드용 종이를 뒤표지와 마찬가지로 겹짜 붙
인 다음 안감용 종이를 붙인다. 이때 빈 공간에도 종이가 잘 접착되도록 밀대로 밀
어 꼼꼼하게 붙인다. 표지 완성!

이제 속지와 표지를 합체해 줄 재본만 남았다. 대량생산의 경우 속지를 실로 꿰
매고(사철) 양장된 표지를 본드로 붙인다. 우리가 만드는 앨범은 리본으로 묶는 일
종의 사철 방식. 뒤표지와 속지, 앞표지를 추려 가지런히 만든 다음 헤드 부분에 드
릴로 구멍을 세 개 뚫는다. 종이먼지를 잘 털어낸 다음 리본을 가운데 구멍부터 넣
어 주고, 맨 아래쪽 구멍으로 뽑아 올린다. 그리고 다시 이 리본을 가운데 구멍으로
집어넣고 이번엔 맨 위 구멍으로 뽑아 올려 준다. 그 다음 예쁘게 묶어 주면 내 손으
로 만든 나만의 앨범 완성!

칼질을 하고 풀칠을 해본 게 얼마 만이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만든 앨범에
사진을 붙이는 감각적인 순간. 어릴 때 형제들과 찍은 사진, 오빠부대 시절 당시 연
세대 1학년이던 이상민과 찍은 ‘직찍’ 사진, 돌아가신 외할머니 사진을 차례로 붙인
다. 책은 역시 ‘정신감응’의 매체! 마분지를 잘라 필통을 만들던 여고시절을 떠올리
고, 또 이렇게 만든 앨범은 가족과 친구와 또 앞으로 알게 될 사람들에게 수많은 정
보와 감정을 전달해 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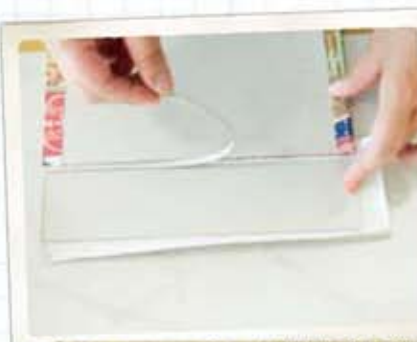
문화예술프로젝트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문의 02-2157-8770

글, 김송은 강원도 한적한 읍내 서점집 앞로 태어나 학문, 교양과 그다지 연관이 없는 실수려운 책들을 읽어치우며
문학, 만화, 실용서까지 닥치는 대로 책을 만들고 있다. 일인 출판사 ‘송송책방’의 이름을 단 책을 내는 것이 꿈이다.
사진,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드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다.

• 앞표지 만들기



5 두께가 잘 열리도록 공간을 띄우는 것이 포인트.
헤드 부분 5cm를 자르고, 5mm를 더 잘라 둔다. 뒤표지와
같은 방식으로 포장지를 붙인 다음 헤드와 앞표지 쪽에
1cm 안으로 들어 선을 긋고 헤드용 종이 전체에 붙임을 한
후, 선에 맞추어 붙인다.



6 안쪽으로 뒤집어 잘라 둔 5mm 종이를 헤드 부분 종이를
차례로 붙인 다음 5mm 종이를 떼어낸다.



7 안감 종이를 붙이고, 비워둔 공간에 종이가 잘
접착되도록 밀대로 밀어 준다.



8 드릴로 구멍을 세 개 뚫은 다음, 가운데 구멍으로 리본을
넣고 맨 아래 구멍으로 뽑아 올린다. 다시 가운데 구멍으로
넣은 후, 맨 위 구멍으로 뽑아 올린다. 리본을 묶으면 완성.

Must 7



01 창조적인 협업, 창작에서 유통까지

2011 서울아트마켓(PAMS) | 10월 10일~14일 |

국립극장, 국립극단 | 02-708-2244

서울아트마켓은 공연예술의 활발한 창작과 제작,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월 개최된다. 우수공연예술작품 쇼케이스, 단체와 작품의 홍보를 지원하는 부스전시, 학술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국내외 공연예술전문가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다. 예술적 완성도와 해외경쟁력을 갖춘 작품들을 매해 펄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하여 선보인다. 2011년 서울아트마켓은 전 세계 공연예술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현재성과 아시아-아시아, 아시아-다른 지역 간의 창조적인 협력을 논의한다.

01

03 이것이 플라멩코다

〈두알리아, 라 레아엔다〉 | 10월 6일~9일 | LG아트센터 | 02-2005-0114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뜨겁고 정열적인 춤과의 조우.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이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호아킨 코르테스 등 플라멩코 대가들이 안무직을 발표하면서 널리 이름을 알렸다.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고, 뜨거운 열기도 절도 있는 양상들이 다채로운 의상, 정열적인 음악과 어우러진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황홀경의 춤, 플라멩코다.



03

02



02 금단증상 심합니다

〈아날로그로 살아가기〉 |

크리스토프 코호 지음 | 김정민 옮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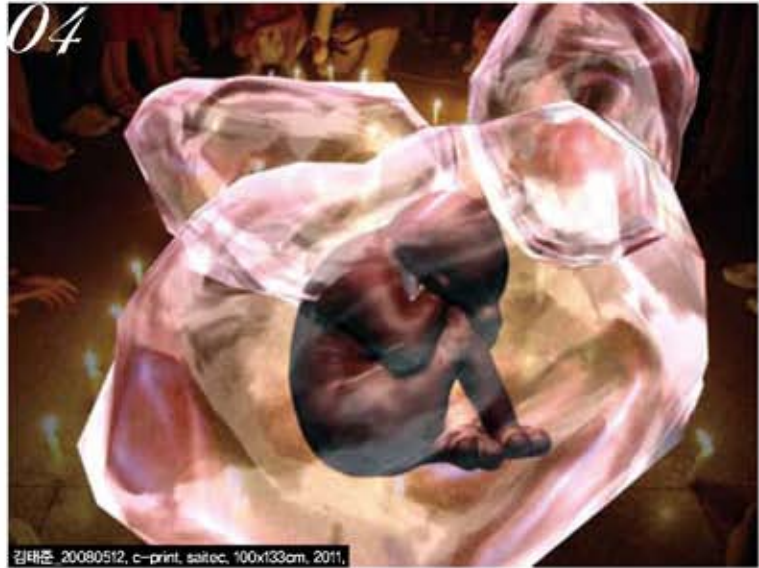
율리시즈 퍼냄

독일 유명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프 코호의 40일간의 디지털 해독 프로젝트.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 오프라인으로 지낸 날들의 기록이다. 디지털 환경에 지나치게 길들여진 탓에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더 이상 단순 정보를 기억하려 하지 않게 된 우리의 현재를 비춘다. 실험 초기에 금단증상을 겪은 저자는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등을 취재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해결책을 고민한다.

04 우리들의 심리풍경

〈21세기 풍경: Emptiness〉展 | 10월 16일까지 |
성곡미술관 1관 | 02-737-7650

첨단과학기술, 개발의 시대를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공허한 심리풍경. 21세기 현대사회의 물리적 풍경이 아니다. 사회 변동과 같은 요인에 대한 지성적, 비판적 관심이 배어 있는 심리적 풍경을 통해 그것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시각적으로 모색한다. 김기철, 김덕영, 김주리, 김태준 등의 작가가 참여한다.



김태준, 20080512, c-print, salted, 100x133cm, 2011.

05



05 파주출판도시로 고고생

파주북소리 2011 | 10월 1일~9일 | 파주출판도시 |
031-955-1734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와 문화행사가 가득하다. 책 읽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책 만드는 사람이 함께하는 북페스티벌이다. 노벨문학상 110년사를 총망라하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노벨문학상 110주년 특별전〉이 눈길을 끈다. 최초 수상자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에니스트 헤밍웨이 등 역대 수상작까지 작가 107명의 사진과 책, 편지,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06 중년 로맨틱 코미디

연극 〈나도 아내가 있다〉 | 2011년 10월 7일~2012년 1월 1일 |
대학로 PMC 소극장 | 02-358-5449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니다. 이미 아내가 있었다. 연극 〈나도 아내가 있다〉는 2005년 〈황소지붕 위로 올리기〉라는 제목으로 제1회 함세덕 화극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모진 풍파를 헤치고 희로애락을 함께한 아름다운 중년 부부의 이야기다. 중년 버전의 흥미진진한 로맨틱 코미디라 할 만하다. 〈전원일기〉의 복길 엄마, 배우 김혜정이 합류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07 아파서 우는 게 아냐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 박영희 지음 |

살림Friends 펴냄

〈길에서 만난 세상〉의 르포작가 박영희가 새롭게 펴낸 에세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그림에도 미소를 돌아볼 줄 아는 아름다운 12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가 직접 전국을 돌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진솔하게 담았다. 시장에서 20년간 십장 노릇을 하며 모은 1억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도라지 농사만으로 포박 3년을 모아 마련한 100만 원을 기부한 난민촌 할머니 등을 만난다.

Cultural Calendar

10월의 재단소식

10



김상열 연극세계 제20명7



타이타스



오페라 시리즈 이도메네오와 미탄의 사수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도시 속의 가을, 가을속에 스며드는 중년의 사랑이야기 - 제후의 가을 데리고 다니는 여인	설치극장 정미소	10/7(금)~10/8(일)	설치극장 정미소 02-3672-3001
	침입 (Invasion)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0/18(수)~10/22(토)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2-760-4840
	타이타스	서강대 메러홀 대극장	10/20(목)~10/24(월)	서강대 메러홀 대극장 02-705-8743
	화장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10/23(토)~10/24(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02-3668-0029
	김상열 연극세계 제20명7 통신과 머저리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10/31(월)~11/13(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02-760-4840
무용	김선이 프로젝트 2011 (미안악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0/6(목)~10/7(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2-760-4840
	人 조화와 불균형	호암아트홀	10/12(수)	호암아트홀 02-751-9606
	SUN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10/27(목)~10/28(금)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02-3668-0029
	순간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0/27(목)~10/29(토)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2-3668-0029
	댄스드라마 新 차용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10/27(목)~10/30(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2-3668-0029
음악	작곡동인지음 제11회 정기발표회	영산아트홀	10/7(금)	영산아트홀 02-751-1587
	소노리테 독주6중주의 테마음악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0/8(토)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영국의 목관음악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0/14(금)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마태악회 제36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0/14(금)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오페라 시리즈 이도메네오와 미탄의 사수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0/1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영상불 프리즈마의 우드워드 테스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0/18(화)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2011 우리시 우리노래 가곡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0/3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02-399-1111
	제10회 경서도 소리극 왕좌를 버린 양녕대군의 경나루 이야기	나루아트센터	10/7(금)	나루아트센터 02-2049-4700
전통	외계신호수신장치	LIG아트홀	10/7(금)~10/9(일)	LIG아트홀 02-4900-3900
	인간문화제 김죽파 탄생 1백주년 기념 - 인간문화제 앙상블과 제자들 100인의 가야금 향연	국립국악원 예악당	10/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02-580-3333
	관소리브레히트 사전가	백암아트홀	10/20(목)~10/30(일)	백암아트홀 02-529-1333
	김효영 생황독주회	남산국악당	10/21(금)	남산국악당 02-2261-0515
시각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전시	박보나 개인전	플랫폼플레이스629	10/19(일)~11/8(일)	플랫폼플레이스629 02-742-4528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 가는 역사를 만나다	대안공간 홍정각	9/21(수)~10/14(금)	대안공간 홍정각 02-363-2093
	기획연계국재단체전 백지에서부터	아트스페이스 풀	10/21(금)~11/30(수)	아트스페이스 풀 02-399-4805
	취유 부백루기	선 컨템포러리	10/6(목)~11/10(목)	선 컨템포러리 02-720-5789
	타임캡슐-관도라의 상자	정미소	10/18(화)~11/15(화)	정미소 3672-3001
다원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다원	로보타타: ROBO_TATA	KoIAN (코이안)	10/15(토)~10/23(일)	나루아트센터 02-2049-4700
	빛 퍼포먼스 [늑대의 웃]	살롱드 미랑	9/3(토)~10/8(토)	살롱드 미랑 010-2007-1225
우수예술축제 지원사업				
축제	제7회 서울와우텍스티벌	홍대 앞 주차장 거리 및 카페 북촌문화공간, 갤러리 등 홍대 앞 일대	9/28(수)~10/3(월)	와우책문화예술센터 02-336-1585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남산예술센터				
공연	꿈속의 꿈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10/8(토)~10/23(일)	02-758-2150
서교예술실험센터				
프로그램	2011 흥대 앞 다시보다	서교예술실험센터 외 흥대주차장거리	전시 10/5(수)~10/23(일) 마켓 10/7(금)~10/9(일)	02-333-0246
	서교동 하늘공작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0/7~11/26 (매주 토)	02-333-0246
금천예술공장				
프로그램	예술가의 방	금천예술공장 워크숍룸 및 예술가 개별스튜디오	10/7(금)	02-807-4135
	금천예술공장 2011년도 국제심포지엄	금천예술공장 PS333	10/27(목)	02-807-4600
전시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전시 1부 허태원 <금천공동정원>	금천예술공장 PS333	9/27(화)~10/7(금)	02-807-4135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전시 2부 정연두 <남서울 무지개>	금천예술공장 PS333	10/12(수)~10/22(토)	02-807-4122
신당창작아카데미				
전시	2기 입주작가 석승현 개인전 <The Natural (자연)>	신당창작아카데미 1 전시실	9/24(토)~10/3(월)	02-2732-8833
	2기 입주작가 조영미 개인전	신당창작아카데미 1 전시실	10/4(화)~10/10(월)	02-2232-8833
	2기 입주작가 이진희 개인전	신당창작아카데미 1 전시실	10/11(화)~10/17(월)	02-2732-8833
	2기 입주작가 일나영 개인전 <프로젝트 <아이-소리 얼굴> 결과전	신당창작아카데미 1 전시실	10/18(화)~10/24(월)	02-2732-8833
	2기 입주작가 안경희 개인전	신당창작아카데미 1 전시실	10/25(화)~10/31(월)	02-2232-8833
	2기 입주작가 임혜원 개인전 <new leather>	신당창작아카데미 2 전시실	9/22(목)~10/5(수)	02-2232-8833
	2기 입주작가 시지은 개인전	신당창작아카데미 2 전시실	10/6(목)~10/13(목)	02-2732-8833
	2기 입주작가 조수정 개인전	신당창작아카데미 2 전시실	10/14(금)~10/21(금)	02-2732-8833
	2기 입주작가 진유리 개인전	신당창작아카데미 2 전시실	10/22(토)~10/28(금)	02-2732-8833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 & II <화요예술클럽> 결과전	신당창작아카데미 2 전시실	10/29(토)~11/7(월)	02-232-8833
프로그램	공공미술프로젝트 <흥+정 가게> 오픈식	산당지하상가	9/14(수)~9/27(화)	02-2732-8833
	공공미술프로젝트 <골목, 누빌>	신당창작아카데미 인근 골목길	10/1(토)~11/5(토)	02-2732-8833
연희문학창작촌				
공연	연희문학창작촌 가을문학축제 <그 인>	연희문학창작촌	9/29(목)~10/3(월)	02-324-4690
	10월 연희목요일낭독극장 <詩, 市, 시민들>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10/27(목)	02-324-4690
문래예술공장				
프로그램	[MEET] 바퀴달린 새의 동굴원 3기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M30	10/1(토), 10/15(토)	02-2676-4300
전시	[MEET] 고양이들 부딪혀 (전시회 및 고양이 파티)	문래예술공장 옥상 외	10/15(토)	02-2676-4300
영화상영	[MEET] 문래동네, 씨네문	대안공간 문,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0/8(토), 10/21(금)	02-2676-4300
대관 전시	복소사이아터의 보이지 않는 힘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M30	10/20(목)~10/30(일)	02-2676-4300
대관 공연	2011 제1회 판아시아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10/17(월)~10/19(수)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월요일N하늘공방	성북예술창작센터	10/4(화)~11/28(일)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확자자열, 소문난 친구>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0/1(토)~10/3(월)	02-871-7100
	복합영역 프로그램 <답은, 안에 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0/5(수)~11/19(토)	02-871-7100



김효영 생황독주회



신당창작아카데미 <프로젝트아이>



10월 연희목요일낭독극장 <詩, 市, 시민들> 문태준 시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확자자열, 소문난 친구>



성북예술창작센터 <월요일N하늘공방>



책 읽는 서울 움직이는 도서관



서울문화예술탐방



문화나눔 행복서울 광진광장



문화나눔 행복서울 불수대공원



가든파라드 하계콘서트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홍은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가을 나들이	홍은예술창작센터	10/1(토)	02-304-9100
전시	EAT, PLAY, LOVE	홍은예술창작센터	8/26(금)~10/3(일)	02-304-9100
	차혜림 개인전 <PIT STOP>	홍은예술창작센터	10/11(화)~10/31(일)	02-304-9100
워크숍	새터데이 JAM	홍은예술창작센터	8/13(토)~10/1(토)	02-304-9100
	유미 오사나미 워크숍	홍은예술창작센터	10/1(토), 10/8(토)	02-304-9100
공연	춤, 열다 시즌2	홍은예술창작센터	10/1(토), 10/22(토)	02-304-9100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시	창작공간페스티벌 현장 (선유도 공원)	9/30(금)~10/3(일)	02-423-6674~5
전시	<Thanks Giving>展	장애인창작스튜디오	9/29(목)~10/19(수)	02-423-6674~5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	책 음악과 만나다	대학로 연극센터	10/11(화) 오후 7시30분~오후 9시	02-3290-7146, 7162
	책 세상과 만나다	대학로 연극센터	10/18(화) 오후 7시30분~오후 9시	02-3290-7146, 7162
	책 영화와 만나다	대학로 연극센터	10/25(화) 오후 7시30분~오후 9시	02-3290-7146, 7162
	움직이는 도서관	독심 한강공원 음악분수 앞	10/8(토) 오후 1시~오후 6시	02-3290-7146, 7162
	움직이는 도서관	독심 한강공원 음악분수 앞	10/22(토) 오후 1시~오후 6시	02-3290-7146, 7162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탐방 문학탐방	중앙고 등	10/7(금), 10/14(금), 10/21(금)	02-3290-7144
	서울문화예술탐방 영화탐방	한국영상자료원	10/28(금)	02-3290-7144
	서울문화예술탐방 역사탐방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10/1~10/29 (매주 토)	02-3290-7144

문화나눔 행복서울				
프로그램	열린극장	풍물시장 외 34곳	10/1~10/29 (매주 토)	02-3290-7142, 7143, 7146

가든파라드 <문화술프로젝트>				
공연	하늘빛 콘서트 (극: 문사이니스, 레스카 / 토: 웅산밴드)	가든파라드 옥상정원 (테크노관)	10/1(토)~10/2(일) 오후 7시30분	02-2157-8770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가든파라드 중앙광장	10/7(금)~10/8(토) 오후 7시30분	02-2157-8770
	가드너(Gardner) 공연	가든파라드 내 곳곳	10월 (매주 토·일)	02-2157-8770
전시	신오일물展	가든파라드 영관 9층 전시장	10/1(토)~11/18(일)	오전 10시~오후 8시
	이예희 작가 <원더풀 픽처스>	가든파라드 영관 9층 전시장	오전 10시~오후 8시	
교육	문화술프로젝트 브런치강연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하성호 지휘자)	가든파라드 배선관 11층 중회의실	10/5(수) 오전 11시	02-2157-8771
	아따북카페 구연동화	가든파라드 영관 9층 전시장	10/2(일), 10/16(일), 10/30(일) 오후 2시	02-2157-8771
	만드는 가드너 (북아트 만들기)	가든파라드 영관 9층 전시장	10/8(토), 10/22(토) 오후 2시	02-2157-8771
체험	가드너마켓	가든파라드 중앙광장	10/8(토)	02-2157-8771
공연	[남독극] 박완서, 배우가 다시 읽다 '여덟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가든파라드 아트홀 (영관10층CGV내)	10/5(수)~10/8(토)	02-2157-1140
	[남독극] 박완서, 배우가 다시 읽다 '그리움을 위하여'	가든파라드 아트홀 (영관10층CGV내)	10/9(일)~10/13(목)	02-2157-1140
	[가족뮤지컬] 테디베어와 백조의 호수	가든파라드 아트홀 (영관10층CGV내)	10/25(화)~11/6(일)	02-2157-1140

S F A C News

10월의 재단소식

10



2011 홍대 앞 다시보다



금천예술공장 국제심포지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공프로젝트

〈2011 홍대 앞 다시보다〉

2009년부터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기획으로 진행된 외부 공공프로젝트 〈2011 홍대 앞 다시보다〉는 회화, 공예, 일러스트 외 다양한 예술작품의 전시장이자 시민들과 소통하는 축제다. 2011년에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홍대 앞 주차장거리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특별히 단순한 아트마켓 축제의 장이 아닌 공공프로젝트로 홍대 앞을 또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건축물을 조성한다. 또한 정체되지 않고, 예술 특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갖춘 홍대 앞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및 지하 다목적공간 전시장에 선보인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전시 10월 5일(수)~10월 23일(일) 마켓 10월 7일(금)~10월 9일(일)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및 지하 & 홍대 주차장거리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0246

서교예술실험센터 시민대상 프로그램

서교동 하늘공작소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11년 상반기, 시민대상 상설프로그램으로 센터 옥상 공방을 개방하는 〈서교동 하늘공작소〉 운영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교동 하늘공작소_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한다. 전문 목공 강사와 함께 일정한 커리큘럼으로 매주 다른 형태의 목공용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식 카페 cafe.naver.com/seoulartspace에서 가능하다.

※ 본 프로그램은 별도의 수강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10월 1일(토)~11월 25일(금)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및 지하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0246

금천예술공장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전시

〈남서울 무지개〉 〈금천공동정원〉

금천예술공장은 지난 6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정연두, 하태원 예술가의 프로젝트 결과 전시를 1, 2부로 나누어 금천예술공장 PS333(전시장에서 개최한다. 1부는 하태원 작가의 〈금천공동정원〉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부는 정연두 작가의 〈남서울 무지개〉로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구성된다.

정연두 예술가의 〈남서울 무지개〉는 대도시라는 각박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진 작품이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무지개아파트'의 639세대 단지에 '미술작가'가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후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여 직접 집을 방문하여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모든 사진은 동일한 화각으로 베란다에서 실내를 향하는 구조로 촬영하였으며, 80세대를 선별하여 동일한 액자에 담아 상하좌우 정방향으로 전시한다. 또한 같은 구조에 사는 이웃주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형식의 리플릿을 제작하여 아파트 주민 및 방문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하태원 예술가의 〈금천공동정원〉은 작은 골목과 주차장 등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화분들이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버려진 화분에 꽃을 심어 삶과 도시의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작가는 함께 꽃을 가꾸며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을 사진, 영상촬영, 주민 인터뷰 등 기록으로 남겨 전시한다.

금천예술공장 국제심포지엄

〈예술의 실험: 산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

금천예술공장은 오는 10월 27일 제3차 금천예술공장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예술의 실험: 산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계자, 구로가산 산업체 전문가, 학생 등



연희문학창작촌 가을문학축제 <작가와 함께 걷다>



문래예술공장 MEET프로젝트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바퀴달린 새의 동물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제3차 금천예술공장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한국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박찬득 본부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벨기에 아티이코노미(Arteconomy) 대표 줄리 반덴브룩(Julie Vandenbroucke) 외 국내외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공업단지의 예술단지화 사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문화화 전략, 새로운 예술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 '문화와 산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연희문학창작촌 가을문학축제

<그 안>

연희문학창작촌은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희문학창작촌 전역에서 입주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풍성한 가을문학축제 <그 안>을 펼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홍섭 시인, 박형준 시인과 함께하는 9월 연희목요낭독극장 <터미널, 울었다>, 도종환 시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에게 길을 묻다>, 좋은시공연문화회의 <가을의詩, 詩의 가을>,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강은교 시인, 장이지 시인의 집필실을 들여다보는 <작가의 방>,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선유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작가와 함께 걷는다>, 지역 네트워크 파티 <눌러와>, 알레이 소설 쓰기 <너도 작가다>, 상설 전시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내운시인으로 만든 <빛나는 文>展, <창文>展 등이다.

이번 축제의 제목인 <그 안>은 서울시 최초의 문학 전문 레지던시로서, 작가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하는 신비로운 공간인 연희문학창작촌 '그 안'으로 초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축제를 통해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양방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에게는 문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열린 사이와 새로운 자극의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지역주민, 청소년, 문학 애호가 등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축제 기간 중에는 작가 집필 공간을 제외한 연희문학창작촌 전역이 개방된다.

10월 연희목요낭독극장

<詩, 市, 시민들>

연희문학창작촌의 연간 기획 프로그램인 '연희목요낭독극장'의 2011년 마지막 무대가 10월 27일 저녁 7시 30분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시인, 소설가 등 초대작가를 비롯해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 10명과 함께 시민참여 낭독 무대로 꾸며진다. 그동안 낭독극장의 관람객으로 참여하던 시민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문학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목요일 밤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연희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더해져 시민과 문학, 예술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2011 예장문학콘서트 <이 세상 속 흑과 백 이야기>를 연출한 성경선 씨가 맡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02-324-4690

문래동 영화여행

<문래동네, 씨네문>

문래예술공장에서는 문래창작촌 예술가 나태음(블로그 문) 씨의 기획으로 지난 5월부터 정기 독립영화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래동네, 씨네문'은 12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대안공간 문에서,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는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되며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있다. 상영영화를 포함한 정보는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www.blogmoon.co.kr, 또는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 www.seoulartspace.or.kr에 게재된다.

문의 및 참가신청 문래예술공장 02-2678-4300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바퀴달린 새의 동물원>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복합영역 프로그램 <답은, 안에 있다>

트_바퀴달린 새의 동물원)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재활용품, 폐품을 미술재로 활용하여 소형 작품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정이다. 10월에는 1일과 15일,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 M30에서 진행된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11월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 M30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과학과 예술의 만남

<답은, 안에 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복합영역 프로그램 <답은, 안에 있다>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액체, 기체, 고체 등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던 어린이가 쓰레기더미에 갇혔다가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여 탈출에 성공,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탈출 과정에서 물을 얼려 얼음으로 만들어 디딤돌로 사용하거나, 물을 끓여 발생하는 수증기로 자물쇠를 푸는 등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문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871-7400, 7417

시각예술, 무용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홍은예술창작센터 2기 입주예술가 정기공모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간의 융복합창작공간으로 2011년 5월 개관한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튜디오에 입주할 예술가를 모집하는 '홍은예술창작센터 2012년도 2기 입주예술가 정기공모'를 실시한다. 공연예술(무용)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본인의 창작활동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10월 14일 오후 4시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열리며, 입주 신청은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 www.seculartspa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신청서 및 활동계획안은 전문가들로 위촉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무용가 공연 장면

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며, 12월 5일에 2012년도 2기 입주예술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1월 하순부터 장르별로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스튜디오에 입실하여 작업할 수 있다.

홍은예술창작센터는 입주예술가들에게 6~12개월간 개인 스튜디오와 무용연습실 및 각종 공용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며, 입주자가 창작활동 지원 워크숍 프로그램 진행 등 입주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과의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

문의 홍은예술창작센터 02-304-9100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차혜림 개인전

<Pit Stop>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차혜림(드로잉, 설치미술)의 개인전이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주간 홍은예술창작센터 2층 및 옥상공간에 서 개최된다. 사진적으로 자동차 레이스에서 급유나 수리 또는 휴식 등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Pit Stop>은 이번 전시에서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유보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매체의 중간 속성을 활용하여 소설의 뒷면과 같은 실재의 공간에 설치된 작품을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며, 작업 전체를 아우르는 긍정적이고 자장적인 기능태의 모색 지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각적 전이를 시도하는 영상 및 드로잉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른 상황으로의 준비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이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전시 안내

일시	10월 11일(화)~10월 31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홍은예술창작센터 2층
문의	홍은예술창작센터 02-304-9100



미술영위 퍼포먼스,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 김종순



대학로 연극투어



가든파라드 (아트마켓)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장애인창작스튜디오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참가 프로그램

장애인창작스튜디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풍성한 문화예술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그동안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 꾸준히 교육활동을 펼쳐 온 장애인·비장애인 예술가의 교육성과를 위해 마련된 특별전시 <Thanks Giving>展이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 있을 예정이다. 서양화, 누드크로키 작품 약 20여점이 전시되는 <Thanks Giving>展은 구필화가, 죽필화가, 지체장애 예술가들의 특별한 작품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창작스튜디오에서는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선유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친환경 콘셉트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선유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새 집COME> 프로그램에서는 가족과 함께 직접 새집을 만들어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들이 처음으로 서울시창작공간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장애인·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교류하는 첫 행사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프로그램명	내용	시간	장소
특별전시 <Thanks Giving>展	장애인창작스튜디오 대관교육프로그램 (서양화, 누드크로키) 성과전	9/29(목)~10/19(수) 오후: 9/29 오후 2시	장애인창작 스튜디오
<새집.come>	니만의 새집 만들기	9/30(금)~10/1(토)	선유도 현장

문의 장애인창작스튜디오 02-423-6674~5

연극 속으로의 특별한 체험

10월 대학로 연극투어

대학로 방문의 시작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 속 일일사색(一日四色) 만남을 통하여 열정과 공연이 살아 숨 쉬는 대학로의 생생한 예술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0월에는 1회를 증편하여 2회의 대학로 연극투어를 운영한다. 특히 10월 16일에는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되는 장성희 작 신동인 연출의 연극 <꿈속의 꿈>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남산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로 연극투어는 10월 23일 12시 30분 서울연극센터에서의 설레는 첫 만남 후,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스테이지투어'를 통해 극장 뒤 숨은 곳을 직접 둘러보며, 연극배우에게 듣는 대학로와 연극이야기 '배우와의 만남',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공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연극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용은 1인 1만원이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 www.daehangn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43-9333

가을밤 옥상정원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콘서트

문화술프로젝트 '하늘樂' 콘서트

잔디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 연인, 친구,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가 온다.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10월의 주목할만한 공연팀으로는 대한민국 락앤롤의 현재이자 미래로 일컬어지는 밴드 '문사이너스'와 레게와 스카를 연주하는 '레스카', 그리고 섬세한 발라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웅산밴드'의 공연이 이어진다. 10월 2일 콘서트 중간에는 연인들을 위한 '하늘樂 프로젝트' 코너가 마련되어 연인,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볼거리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연 중 특별한 사연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뮤지션들과 공연 기획팀이 도와주고, 커를람을 비롯 케익과 꽃다발을 선물로 준다.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체험숲 이야기'

공연 안내

일시	10월 1일(토)(문사이너스 레스카), 2일(일)(웅산밴드)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든파이프 옥상정원(테크노관)
문의	02-2157-8770 /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블로그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오케스트라와 스페셜 게스트와의 만남

문화술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9월부터 진행되어 10월 8일까지 오후 7시 30분, 가든파이프 야외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셜 게스트와의 협연을 들 수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가수 JK 김동욱, 장재인과 사물놀이가 초청되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또한 대중음악, 재즈, 뮤지컬, 영화음악을 우리 가락으로 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팀들로 구성되어 어려운 클래식을 누구나 공감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음악 여행이 될 것이다. 10월의 첫 무대를 여는 7일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8일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차례로 이어진다.

공연 안내

일시	10월 7일(금), 8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든파이프 중앙광장
문의	02-2157-8770 /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블로그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문화술프로젝트 '체험숲 이야기'

문화술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을 숲 이야기' 시즌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북아트를 배워보는 '만드는 가드너', 문화술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창작세계를

접하는 '문화술프로젝트 강연', 책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동화구연' 등이다.

이밖에 작가들의 공예작품을 사고파는 프리마켓인 '가든아트마켓'(9월 17일, 10월 8일), 어린이 대상의 미술 놀이터 '상상 상상대회'(9월 17일)가 열린다. 체험숲 이야기의 모든 프로그램은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 www.g5culture.com를 통해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프로그램명	시간	장소
북아트를 배워보는 '만드는 가드너'	9/3, 9/24, 10/8, 10/22(토) 오후 2시, 오후 4시	9층 전사상
문화술프로젝트 강연-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하성호 지휘자	10/5(수) 오전 11시	폐선관 11층 회의실
동화구연	9/4, 9/18, 10/2, 10/16, 10/30(일) 오후 2시	9층 전사상

배우가 직접 낭독하는 낭독극

〈박완서, 배우가 다시 읽다〉

가든파이프 아트홀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박완서 작가의 걸작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산과 그리움을 위하여〉를 배우가 직접 낭독하는 낭독극을 공연한다. 가든파이프 아트홀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가족극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연중 선보일 예정이다. 보다 많은 동남권 지역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티켓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공연 안내

일시	10월 5일(수)~8일(토) [그리움을 위하여] 10월 9일(일)~13일(목)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산] 수, 목 오후 3시 / 화,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6시
장소	가든파이프 아트홀 (영관 10층 CGV내)
가격	전석 1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옥션티켓, 예스24티켓, 롯데닷컴
문의	02-2157-1140, 501-7888 / 홈페이지 www.g5culture.or.kr 블로그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류지희, 최수빈



성북예술창작센터를 찾은 이용객

김연지, 류지희, 최수빈

성북구 길음동에서는 김연지 씨는 주말을 맞이해 딸 류지희 양, 친구 최수빈 양과 성북예술창작센터를 찾았다.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주말이라 건물은 한산했지만 1층부터 옥상 하늘공원까지 꼼꼼히 둘러보았다고 한다.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어떻게 찾게 되었나?

하늘공방 워크숍에 참가했던 지민이 알려줬다. 작화와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다(김연지 씨는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 중이라고 한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데 성북예술창작센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

여기를 둘러보았나?

1층 주민휴게실에서 자마시면서 책도 보고, 갤러리에서 <islet: 섬> 전시도 봤다. 성마을 풍경을 가볍게 스케치한 작품들을 전시 중이었다. 나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떠올라 친근하고 아련한 느낌이 들었다.

방문한 소감이 어떤가?

일정표를 보니 미술자료, 음악자료, DIY 공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는데 주로 평일이더라. 나 같이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아이와 함께 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한다. 아, 그리고 성북예술창작센터 가이드북이나 브로슈어가 있으면 좋겠다. 인터넷 카페에서 보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정하, 송현주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만드는 가드너' 북아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녀

송현주, 이정하

여섯 살 정하는 수줍다. "책 만드는 거 재밌었어?" 물으니 반히 올려다보다가 입을 겨우 달싹여 "네" 한다. "넷 살이야?" 물으니 얼마 뒤에 숨으며 엄마한데 말하라고 옆구리를 찌른다. 가든파이프에서 열리는 〈문화술프로젝트〉에 거의 매회 참여한다는 송현주 씨가 오늘 딸과 함께한 행사는 '만드는 가드너' 북아트 프로그램이다.

〈문화술프로젝트〉에 자주 참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막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는 정하에게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어서 자주 찾는다. 임원동에 살다 보니 가깝기도 하고.

오늘 북아트 체험은 어땠나?

아이와 함께 만드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아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앨범은 평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것 같다.

오늘 만든 앨범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아이와 합작해서 만든 의미 있는 작품인 만큼 사진을 인쇄해서 앨범 가득 채울 생각이 다. 딸이 앨범으로 만들어 오래오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평소 사진은 많이 찍는데 인쇄하는 것은 오랜만이라 기대된다.

연극 〈도화만발〉을 관람한 관객

유지영, 김민정, 이소라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9월 어느 날, 남산예술센터 앞은 연극 〈도화만발〉을 관람하고 나온 인파로 북적였다. 그 속에서 눈에 띄는 여학생 한 무리, '끼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며 공연 후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들을 만났다.

연극 〈도화만발〉은 어떻게 보러 오게 됐나?

서울교대 대학원에서 교육연극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학과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다.

다른 공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공연장이 원형극장이라는 점이 특이했고, 음향효과와 무대 연출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원작자가 일본사람이라던데, 그래서인지 이야기의 진행방식이 독특했고 연극의 규모, 스타일 면에서 기존에 봤던 연극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상징적이고 독특한 무대장치와 소품들 때문에 매 순간 눈을 뗄 수 없었다. 근육질 배우들의 멋진 모습 때문에도 그렇고. 하하, 특히 중간에 등장하는 군우는 정말 최고였다.

공연에 대한 소감은?

상징적인 표현도 많고 이야기 진행방식이 독특해서 그런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극과는 다른 스타일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공연에 더욱 빠져들 수 있었다. 배우들의 목소리, 표정, 몸짓이 모두 완벽해 감동이었다.



유지영, 김민정, 이소라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로 가득 찬 「문화+서울」을 처음 접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소개된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한 달이 금세 지나갈 것 같네요. 특히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에 참여해 연극에 꼭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 초대 코너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정 서울시 성북구 정동2동



「문화+서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폴 골드 인터뷰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CCF라는 기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고요. 앞으로도 멋진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갑범 경주시 광안구 칠곡동



여기저기서 가로수길이 소개되는 것을 보며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어 가로수길을 갔었는데 별 느낌이 안 들더군요. '서울 단상' 칼럼을 읽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거리가 유명해지면 돈이 몰려든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강상현 서울시 서대문구 독야현3동



「문화+서울」은 두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거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부산아트센터, 총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숭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신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이태원, 삼정각, 상명아트센터, 서울연극센터, 대이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경마인미술창작스튜디오, 흥문예술창작센터, 기든파이프



3rd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2008 서울연극제 대상·희곡상·연기상 수상작

꿈속의

고리

꿈을 사면서 내 꿈을 주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Dreams

극단작은신화
Theater Group ZakuShinwa

작 | 장성희 연출 | 신동인

출연 | 길혜연 | 문형주 | 장용철 | 강일 | 송현서 | 이해원 | 김기준 | 박지호 | 김종근 | 성동한 | 서광일 | 김병희 | 오현우 | 김군영 | 김대엽 | 한자영

무대 | 심재현 | 조명 | 최보람 | 작곡 | 김현숙 | 의상 | 이윤선 | 분장 | 송영숙 | 소품 | 박지숙 | 음악감독 | 오종현 | 극단도 | 김명환 | 조연출 | 최영희 | 무대감독 | 최성호 | 사진 | 김호근

2011.10.8-23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8시 | 토 3시 · 7시 | 일 3시 | 월 휴 | 10월 8일 토요일 7시 1회 공연

주최 | 극단작은신화 후원 | 남산예술센터 제작 | 서울문화재단

문의 | 02)889-3561~2 예매 | 남산예술센터 www.nsartscenter.or.kr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kr 1544-1555

